

政策資料 90-02

1990年代 國際經濟環境變化와 政策對應

1990. 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年代 國際經濟環境變化와 政策對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머 리 말

現在 지구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世界史的인 이벤트들은 90年代중 世界經濟가 겪어갈 엄청난 變化를 예고해 주고 있다. 가속되고 있는 蘇·東歐圈의 變化와 東西經濟交流의 擴大, 東·西獨의 統一, 1992年으로 豫定된 EC統合,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 금년 말로 다가온 우루과이 라운드의 마무리 등은 모두 90年代의 國際經濟秩序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經濟에 있어서도 90年代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時期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年 동안 이룩한 實績을 바탕으로 今世紀가 가기 전에 先進國으로 도약할 수 있는 充分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實現해야 하는 時代的 課業을 안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經濟는 안팎으로 수많은 挑戰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특히 廣範圍한 變化가 豫想되는 國際經濟環境에 조화롭게 適應하여 對外經濟關係에서 오는 摩擦을 緩和하고 協力關係를 增進시키는 것이야말로 韓國經濟의 先進國進入에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本研究院은 이 冊子를 통해 앞으로 10年 동안 우리 經濟를 둘러싸고 펼쳐지게 될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조감하고 그에 適應하기 위한 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政府의 政策決定에는 물론 企業의 의사결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本報告書는 本院의 徐壯源, 吳勇錫, 朴泰鎬, 金博洙, 曹琮和 博士에 의해 共同執筆된 것이며, 여러 사람이 쓴 글을 종합해서 하나의 報告書

로 엮어내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曁琮和 博士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여기에 收錄된 意見은 어디까지나 이를 擔當한 筆者들의 意見일 뿐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0年 6月

院長 金 迪 教

目 次

I. 1980年代 國際經濟의 特徵

1. 國際經濟 不均衡의 擴大와 그 背景 9
2. 國際經濟秩序의 動搖11
3. 先進國經濟의 成長好調13
4. 社會主義改革의 黎明14

II. 1990年代의 國際情勢 變化

1.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東西共存體制의 形成16
2. 國際政治 勢力均衡의 再編20
3. 實利爲主의 國際秩序 再編24

III. 1990年代의 國際經濟 環境

1. 經濟的 多極體制의 展開26
2.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深化30
3. 世界交易秩序의 變化40
4. 社會主義圈의 世界經濟에의 統合44

IV. 1990年代의 世界經濟 展望

1. 短期展望50
2. 中長期展望56

V. 對外經濟政策의 課題와 方向

1. 韓國經濟의 位相과 課題61
 2. 經濟交流의 多邊化63
 3. 對外經濟摩擦의 緩和71
 4. 積極的인 產業構造調整의 推進73
 5. 南北交流의 擴大75
- 參考文獻.....79

表 目 次

〈表 I-1〉 主要國의 經常收支 推移	10
〈表 I-2〉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推移	13
〈表 III-1〉 美國・日本・EC의 主要經濟指標(1988年 現在)	28
〈表 III-2〉 主要經濟圈의 GDP 構成(1988年 現在)	32
〈表 III-3〉 亞・太經濟의 成長과 比重	34
〈表 IV-1〉 主要國의 實質經濟成長率 展望	51
〈表 IV-2〉 新興工業國의 經濟展望	52
〈表 IV-3〉 主要國의 貿易伸張率 展望(物量基準)	53
〈表 IV-4〉 主要國의 物價上昇率 展望	54
〈表 IV-5〉 通貨單一化를 감안한 西獨經濟 展望	55
〈表 IV-6〉 主要國 通貨의 實效換率 變動率 展望	56
〈表 IV-7〉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推移 및 中長期 展望	57
〈表 IV-8〉 美國의 國防費 支出 減少가 美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58
〈表 IV-9〉 主要國의 經常收支 展望	59



I. 1980年代 國際經濟의 特徵

80年代는 世界經濟가 지속적인 成長好調를 보였으나 主要國家間의 國際收支 不均衡이 深化됨에 따라 國際貿易 및 通貨秩序의 不安定이 크게 부각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80年代는 蘇聯을 위시한 社會主義諸國에서 體制改革運動이 일어남으로써 國際政治 및 經濟秩序의 再編成을 예고한 기간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지난 10년간 경험한 국제경제의 특징적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國際經濟 不均衡의 擴大와 그 背景

80年代 世界經濟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을 든다면 主要先進國 사이에 國際收支의 不均衡이 크게 팽창한 점이다. 美國의 대폭적인 經常收支 赤字와 日本·西獨 및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黑字累積으로 壓縮되는 國際經濟의 不均衡은 戰後 美國의 hegemony 아래 유지되어 온 國際秩序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經濟의 不均衡에는 80年代初에 美國政府가 실시한 經濟政策과 東西冷戰의 分위가 크게 作用하였다. 70年代末과 80年代初의 美國經濟는 극심한 景氣沈滯와 두 자리數 인플레이에 시달렸으며, 81년에 執權한 레이건 大統領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한 方案으로 이른바 「레이저노믹스」를 제창하였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한 채 財政赤字만 增大시켰다.

뿐만 아니라 「강한 美國(strong America)」의 재현을 기치로 내세운 레

〈表 I-1〉 主要國의 經常收支 推移

(單位 : 10億 달러)

	80	85	86	87	88	89
美 國	1.8	-112.8	-133.2	-143.7	-126.6	-105.9
日 本	-10.8	49.2	85.8	87.0	79.6	56.8
西 獨	-15.9	17.0	39.9	45.6	48.6	48.7
新興工業國	-7.7	8.3	23.4	31.1	28.6	21.6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이건政府의 保守主義의 성향과 당시의 美·蘇間 軍備競爭은 美國의 國防費支出을 GNP의 6%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結果的으로 美國의 財政赤字는 가속적으로 擴大, 80會計年度에 700億달러 수준이었던 赤字規模가 83會計年度에 이르자 2,000億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한편 인플레이抑制에 초점을 맞춘 폴 불커의 強度 높은 金融緊縮은 財政赤字의 확대와 함께 金利를 급격히 上昇시킴으로써 美國의 우대금리(prime rate)는 한때 사상 최고수준인 21%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달러貨의 超強勢現象이 나타났다.

財政赤字의 累積과 달러貨의 超強勢는 곧이어 美國의 國際收支 惡化로 나타나 81년까지만 해도 거의 均衡狀態에 있었던 美國의 經常收支는 그 후 赤字로 反轉하였고, 84年 이후에는 1,000億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한편 日本과 西獨 및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은 그들의 강한 競爭力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對美黑字를 累積하게 되었다.

이러한 主要國家間의 國際收支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5년의 플라자合意(Plaza Agreement) 이후 主要通貨間의 換率調整이 있었으나 世界經濟의 構造的 不均衡의 改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2. 國際經濟秩序의 動搖

오늘날 世界經濟가 暴露하고 있는 摩擦과 갈등 그리고 不安定의 상당 부분은 이 不均衡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89년 말 현재 6,030億달러에 이르는 對外純債務를 안게 된 美國은 더 이상 國際經濟秩序를 지탱하던 종전의 役割을 遂行할 餘력이 없어 보인다. GATT·IMF 시스템에 바탕을 둔 전후의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그들 스스로가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美國이 앞장을 서서 擴散시키고 있는 雙務主義와 相互主義의 濫用은 多者間·無差別 自由貿易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既存의 國際貿易秩序를 위협하고 있다. 美國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推進하는 雙務協商이나 캐나다와 締結한 自由貿易協定 등이 좋은 예이다. 美國과 摩擦을 빚고 있는 主對象國이며 世界最大債務國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日本은 3,500億달러(89년 말 현재)에 달하는 對外純資産을 바탕으로 國際經濟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흔미해진 國際經濟秩序를 기존의 體制內에서 解決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利害를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라도 互惠關係를 돈독히 하려는 地域主義가 強化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까지 EC域內市場의 單一化를 目標로 발효된 유럽單一化法(Single European Act)이다. 70年代에서 80年代初에 걸쳐 經濟活力의 저하로 비관론(Europessimism)에 빠져 있던 유럽經濟는 EC統合計劃의 발표 이후 다시 활기를 찾게 되고 世界經濟에서 그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美國의 債務國化, 日本의 영향력 增大, EC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國際經濟力의 多極化 혹은 과두체제화 추세에 따라 「國際經濟問題에 대한 共同管理(pluralistic manag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¹⁾의 必要性이 제기되었고, 세계경제의 危機管理를 위한 主

1) Bergsten, C. F., *America in the World Economy: A Strategy for the 1990s*, Washington D.C.: IIE, 1988. p.67.

要先進國의 共同努力은 80年代 후반에 그 어느 때보다 活潑하게 進行되었다.

先進國間 政策協調의 이정표적인 모임으로 지목되는 1985年 9月の 플라자合意는 美國의 國際收支 改進黨을 위한 대폭적인 달러貨 價値下落을 유도하였으며, 1987年 2月の 루브르協定(Louvre Accord)은 主要通貨間의 換率安定을 위해 참고환율대(reference range)를 設定하였다. 또 와해위기에 처한 多者間 貿易秩序의 再定立을 모색하기 위한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86년에 出帆하였으며, 第3世界의 外債問題 해결을 위한 이른바 베이커計劃(Baker Plan)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巨視經濟政策協調는 각국의 國內政策目標와 對外政策目標의 상충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는 妥結時限을 數個月밖에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핵심이슈인 서비스와 農產物交易問題에 관하여 國別로 또는 經濟그룹별로 상당한 의견대립을 노정하고 있다.

80年代의 特徵적인 樣相의 하나로 國際化(globalization)가 地域主義와 동시적으로 進行된 점을 빼놓을 수 없다. 國際化가 두드러지게 나타난分野는 國際金融 去來이며 오늘날 國際外換市場의 일평균 去來規模는 4,200億달러에 달하고 있다. 金融去來의 국제화는 國際收支 不均衡의 擴大에 따라 流動性이 크게 팽창한 黑字國으로부터 赤字國으로의 金融資産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수많은 構造的 問題들을 안은 美國經濟가 1983年 이후 지난 7年間 年平均 4.1%의 經濟成長率을 기록, 景氣回復 국면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金融去來의 國際化에 힘입어 赤字補填을 위한 資本流入이 순조로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80年代에는 美國經濟의 상대적 쇠퇴와 日本 및 유럽의 浮上으로 國際經濟力이 多極化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經濟間에 마찰과 갈등이 露呈됨으로써 既存의 國際貿易 및 金融秩序가 흔들리게 되었다.

3. 先進國經濟의 成長好調

제2차 오일쇼크로부터 벗어난 83년부터 先進國經濟는 위에서 살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 最長으로 評價되는 경기 회복국면을 維持하고 있다. 美國과 日本이 年平均 4%臺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고 유럽經濟도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經濟活力이 增大되고 있다.

80년대의 先進國經濟가 貿易不均衡의 擴大와 保護主義의 擴散 등 構造的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성장추세를 維持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要因이 作用하였다고 보겠다.

첫째, 美國에서는 財政膨脹에 따른 總需要 增大가 日本에서는 높은 生産性과 競爭力에 힘입은 輸出의 好調와 활발한 設備投資, 그리고 유럽에서는 EC統合의 기대에 따른 投資需要 증대와 市場機構의 活性化가 成長率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國際金融市場의 國際化(globalization)가 進行됨에 따라 不均衡의

<表 I-2>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推移

(단위 : 年平均, %)

	세 계	선진국	미 국	일 본	서 독	E C	개도국	공산권
74~75	1.4	0.3	-0.9	0.7	-0.7	0.4	4.3	3.2
76~79	4.1	3.9	4.2	5.1	3.8	3.6	5.7	3.5
80~82	1.2	0.9	-0.2	3.7	0.3	0.8	1.2	2.4
83~89	3.4 ¹⁾	3.5 ¹⁾	4.1	4.3	2.6	2.6 ¹⁾	2.7 ¹⁾	3.6 ¹⁾

주 : 1) 83~88 年平均 成長率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WEFA, *World Economic Outlook*, 各號.

확대로 크게 팽창한 國際流動性的 이동이 원활해졌으며, 이는 總需要增大와 함께 交易規模의 增大를 가져온 要因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80年代 중반 이후 年間 1,000億달러가 넘는 經常赤字를 기록한 美國經濟가 순조로운 成長趨勢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혹자국들로부터의 資金借入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오일쇼크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인플레이 抑制的인 經濟政策을 추구한 結果 인플레이션率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經濟政策의 景氣調節 能力이 크게 提高되었다. 83~89年 중 先進國 經濟의 年平均 物價上昇率은 4.9%로서 80~82年 중의 9.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넷째, 主要先進國間 經濟政策協調는 플라자合意나 루브르協定 등 換率安定에 대한 合意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87年 10月の 株價大暴落(Black Monday)과 같은 충격을 협조적인 通貨供給 增大를 통해 수습함으로써 급격한 경기침체, 즉 硬着陸(hard landing)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섯째, 70年代와 80年代初에 걸쳐 世界經濟에 두 차례의 급격한 景氣變動을 가져왔던 國際石油情勢가 80년대 초 이후에는 매우 安定的인 움직임을 보였다. 석유수요 둔화, 非OPEC產油國의 대두, 에너지 절약기술의 발전 등이 石油情勢 安定的의 背景으로 작용하였다.

4. 社會主義改革의 黎明

80年代 후반은 국제적으로 冷戰의 분위기가 緩和되고 社會主義國家에서 體制改革이 일어난 기간으로서 특별한 意味를 가진다. 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蘇聯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改革과 開放의 政策은 80년대 후반에 東歐諸國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으며, 89년 말에는 베를린障壁의 開放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戰後 東과 西의 兩大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개되어온 對決과 冷戰構造는 瓦解되

고 東西和解와 共存을 指向하는 새로운 秩序가 胎動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秩序의 胎動은 社會主義國家들이 社會主義體制가 갖는 經濟的 限界를 인식한 데에 그 가장 큰 배경을 두고 있다. 社會主義國家들은 計劃經濟體制 아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資源配分의 歪曲과 經濟沈滯를 打破하는 길은 資本主義的 市場經濟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 經濟改革의 成功을 위해서는 民主的 意思決定體制의 確立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政治的 民主化를 推進하게 되었다.

따라서 戰後 東西冷戰과 데탕트가 항상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여 왔으나, 80년대말의 東西冷戰 緩和가 從前의 추세와 구분되는 것은 社會主義 國家들이 적극적인 開放과 改革을 통해 그들의 經濟에 資本主義方式을 도입하려는 점이다. 따라서 80年代는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產主義는 몰락하고 社會主義國家의 資本主義的 市場經濟體制로의 統合이 시작되는 黎明期라는 데서 큰 歷史的 意義를 가진다고 하겠다.

II. 1990年代의 國際情勢 變化

1990년대의 國際情勢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社會主義圈의 變化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東西和解의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理念的 對決로부터 벗어나 兩陣營間의 緊張緩和와 相互共存을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로 再編되고 있다. 이제 최근의 상황분석을 기초로 하여 1990년대의 國際情勢의 특징적 樣相을 전망해 본다.

1.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東西共存體制의 形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 왔던 美國과 蘇聯이 중심이 된 東·西 兩極의 對決과 冷戰構造는 蘇聯에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執權과 더불어 전개되어온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局面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局面轉換의 動機는 그 동안 計劃經濟體制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東歐圈에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이 과급됨으로써 改革·開放 및 民主化가 급속히 확산되고, 드디어는 蘇聯에서도 共產黨 一黨獨裁가 폐기되는 등 共產主義理念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데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國際政治를 急變시키는 계기가 되어 90년대 이후의 國際情勢는 새로운 體制를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

1989년 11월 9일 東獨 國境의 全面開放으로 冷戰體制의 상징이었던 베를린障壁이 허물어지고 마침내 東·西獨의 統一이 현실화됨으로써 戰後

지속되던 알타體制는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때 맞추어 冷戰時代의 중추세력이었던 美國과 蘇聯이 1989년 12월 몰타頂上會談을 통하여 冷戰時代의 종식과 平和共存을 선언함으로써 90년대가 脫冷戰·脫理念의 東·西間 協力과 共存體制를 다지는 새로운 시대임을 확인하였다.

國際政治에서의 새로운 共存體制 형성의 배경에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東歐의 民主化 및 體制轉換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東西 兩陣營의 共通認識이 깔려 있다. 그러한 認識은 1990년대의 時代的 潮流로서 계속 擴散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蘇聯과 東歐에서는 오래 전부터 國內적으로 마르크스-레닌-스탈린主義에 입각한 共產主義體制的 유지와 國際적으로 冷戰體制的 지속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經濟的 貧困을 가속화시켜 왔고 終局的으로는 인류의 멸망을 가져 올 核戰爭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體制批判意識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이전에 그러한 體制批判은 용납되지 않았다. 오늘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의 指導原理의 하나인 글라스노스트(公開性)이다. 고르바초프는 모든 情報의 公開과 公開的 批判이 없이 데모크라티자치아(民主化)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글라스노스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 社會主義圈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改革思潮로서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美國과 西方 유럽 국가들은 고르바초프의 「新思考(Novoye Myshleniye)」에 입각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이 蘇聯은 물론 全體 社會主義圈의 西方에 대한 대립적 思考方式을 平和共存的 思考로 轉換시킴으로써 世界平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西方 선진국들은 蘇聯과 東유럽에 物資援助와 最惠國待遇를 해주는 외에 金融支援을 제공할 구체적인 작업에 착

2) Timor Timofeyev, "Social Aspects of Perestroika," in *The New Stage of Perestroika*, by Abel Aganbeyan & Timor Timofeyev, New York : Institute for East-West Security Studies, 1988, pp. 45~47.

수하였다. 특히 政治 및 經濟改革에서 한발 앞서 있는 狀況에서 金融支援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폴란드와 헝가리부터 시작하여 그 支援範圍는 東歐全域으로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西方 선진국들의 東歐支援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計劃은 유럽復興銀行(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BRD)의 開設이다.³⁾ 이 銀行은 東·西유럽을 實質적으로 엮어매는 끈의 役割을 함으로써 유럽一家(A European Home)의 形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 銀行에 參與하는 나라로서 西方 先進國 외에 韓國이 확실한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스라엘·싱가포르·臺灣도 조만간 參與를 決定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東유럽에 대한 經濟的 支援은 EBRD에 의한 것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獨自적으로 1991년부터 폴란드·헝가리에 대한 經濟 및 技術支援을 시작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支援을 擴大하고 東유럽 국가들의 對美 負債 및 借款의 償還期間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日本·英國·프랑스 등도 個別的으로 東유럽 國家들에 대해서 負債償還의 延期 및 中長期 借款의 제공을 決定하였다. 또한 世界銀行(IBRD)도 東유럽의 社會的 下部構造(infrastructure)의 建設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金融支援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西方제국의 東유럽 國家들에 대한 支援은 東歐의 民主化를 촉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民主化에 진전이 없는 알바니아는 支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다. 한편 蘇聯에 대한 支援은 프랑스가 否定的 立場에 있으나 대부분의 EC國家들은 EBRD를 통해서, 또는 COCOM의 規制緩和를 통해서 對蘇支援의 뜻을 밝히고 있다. 美國은 議會의 반대로 對蘇 經濟支援을 당분간 留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蘇聯의 民主化 改革의 방향이 뚜렷하고 당면하고 있는 經濟問題가 페레스트로이카의 장래를 극히 어렵게 할 경우에 美國內에서 對蘇支援을 긍정적으로 보는 輿論이 높아

3) *East-West*, No. 471, December 21, 1989, pp. 7~8 참조.

짐으로써 결국 美國도 對蘇 經濟支援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社會主義圈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中國의 政治的 變化는 東歐에서와 같은 급격한 變革보다 당분간 靜中動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 이유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中國共産黨은 蘇聯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東유럽 국가들의 共産黨과 달리 자생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규모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여건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을 훨씬 덜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현재 中國의 政治的 實權은 鄧小平 등 革命 一世代가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 最高權力機關인 黨總書記와 國務院總理를 수시로 교체하여 政治·經濟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을 通時에 행함으로써 안정 속의 變化의 방법으로 국민들의 不滿을 緩和시키고 있다.

셋째, 中國은 지난 10여년간 經濟改革과 開放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기본적 欲求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줌으로써 蘇聯·東歐에서와 같은 심각한 생필품 不足問題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변화의 욕구를 크게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넷째, 中國은 東유럽과 같이 西方의 言論媒體의 영향을 받지 못해 왔으며, 中國의 宗教는 傳統的으로 順從的인 忠孝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儒敎와 國泰民安 정신을 강조하는 佛敎로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등 東歐의 종교와 매우 다르다. 이 때문에 中國國民들의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意識化 정도는 東유럽에 비해서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1989년 6월 4일의 天安門事態에서 본 바와 같이 中國의 급격한 變革을 主導할 학생 및 知識階層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90년대의 中國政治情勢는 共産黨 지배하의 社會主義政治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中國 권력층은 社會主義圈의 政治的 變化로 인한 孤立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國內적으로는 共産黨의 衛星政黨들을 野黨으로

개편하거나 새로운 야당의 創黨을 허용하여 多黨制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非社會主義圈과의 폭넓은 政治外交 및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國際政治 勢力均衡의 再編

90년대의 世界情勢는 脫理念·脫冷戰의 추세를 한 次元 뛰어 넘어 기존의 體制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國際秩序를 形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美國과 蘇聯을 兩極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東西 軍事블록인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와 華沙條約機構(Warsaw Pact)의 대립적 성격은 사회주의권의 변화로 후자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國家들이 國內經濟문제에 政策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軍事的 優位確保보다는 經濟的 實利追究에 더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東유럽 국가들은 이미 非共產黨 정권을 세우고 國內의 政治와 경제문제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西方 先進國들의 經濟的·技術的 支援을 얻어내기 위해서 華沙조약기구로부터의 脫退가 거의 확실시된다.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新네오그라드宣言」으로 東유럽 국가들에 대한 간섭을 포기하였고, 蘇聯邦도 기존의 각 共和國의 자율권 확대뿐만 아니라, 民族紛糾가 심한 발트海 3國의 獨立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極東지역에 새로운 自治共和國를 신설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蘇聯의 이러한 國內外的 政策의 변화는 國內經濟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蘇聯의 消費財 부족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蘇聯의 國家經濟機關이 계통적으로 需給을 감시하고 있는 주요 소비재 1천개 품목 가운데서 시민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겨우 10~12%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生必品の 구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물자부족은 필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를 야기시켜 지금 蘇聯 국민들은 戰時를 빼놓고는 史上 가장 높은 인플레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재시장의 혼란이 가져다 주는 또하나의 社會病理는 買占賣惜과 不正腐敗의 만연이다. 이러한 국내문제는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蘇聯의 집권층으로 하여금 對外問題에 관심을 돌릴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蘇聯으로 하여금 軍備競爭을 포기하게 한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자의 累增이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공개된 재정적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1985년에 180억루블, 1986년에 479억루블, 1987년에 571억루블, 1988년에 901억루블이었으며, 1989년에는 1천억루블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의 蘇聯 재정적자는 歲出豫算의 10%, 1988년에 공표된 蘇聯 GNP 8,660억루블의 12%를 차지하는 크기이다.⁴⁾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蘇聯의 재정에 의해서 지탱되어 온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특히 蘇聯의 재정적자 累增과 더불어 蘇聯의 상대국인 美國도 GNP의 3.4%에 달하는 財政 및 貿易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美蘇의 재정적자는 두 나라의 利害關係를 일치시킴으로써 양국의 海外 주둔군 減縮을 포함한 軍備縮小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두 나라 모두 財政赤字의 最小化를 위해서 軍備減縮規模를 늘려나갈 展望이다.

1990년대에 美·蘇 兩國의 軍備縮小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이들 두 나라의 國際政治에서의 세력감퇴는 결과적으로 막강한 經濟大國으로 浮上한 西獨과 日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西獨은 1990년대에 獨逸統一에 따르는 國內外的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을 것이다. 西獨은 東獨과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政

4) *Praviteistvennyi vestnik*, 1989, No. 18. 財政赤字가 政府公報로 발표된 것은 蘇聯 歷史上 처음 있는 일이다.

治·經濟·社會問題를 主導的으로 협의하는 한편 周邊國家들과의 새로운 關係設定을 모색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美國·蘇聯·英國·프랑스 등 戰後 獨逸分割에 參與했던 國家들로 하여금 統一獨逸에 유리한 合一點을 도출하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따라서 西獨은 일단 統一獨逸의 NATO 잔류와 더불어 1992년으로 豫定된 EC의 市場單一化를 성사시키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의 EC가입추진과 EC-CMEA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유럽經濟圈의 창설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統一獨逸이 유럽 最大의 經濟力을 가진 國家로서 指導的 位置에서 유럽의 他國家들과 經濟的 協力을 擴大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統一 이후의 獨逸의 位相이 커지는 데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周邊國家들과 獨逸의 NATO 잔류를 반대하는 蘇聯의 立場을 撫摩시킬 必要性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統一 이후의 獨逸은 增大된 經濟力을 토대로 하여 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을 묶어 中歐經濟圈을 형성시켜 나갈 가능성도 크다. 獨逸의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에 거기에 가장 큰 反撥을 보일 나라는 프랑스와 英國일 것으로 보인다. 만일 獨逸統一 이후 프랑스와 英國이 獨逸과의 關係가 惡化되거나 相互協力에 순조롭지 못한 경우에 獨逸은 對EC政策을 수정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中歐經濟圈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展望된다.

1990년 7월로 예정된 兩獨의 經濟統合이 이루어지게 되면 東獨의 西獨 상품에 대한 需要가 증가하고 西獨 投資의 상당 부분이 東獨의 經濟建設에 돌리게 될 것이다. 두 獨逸의 均衡發展을 위해서 필요한 對東獨 支援資金은 3천억~6천5백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제통합 후 1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潛在失業者들에게 지급될 보조금만도 社會보장 부문에서 年 60억달러의 追加豫算 지출을 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⁵⁾ 西獨側의 이러한 負擔은 獨逸經濟에 壓迫要因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시적

5) "The New Superpower," *Newsweek*, February 26, 1990, p. 9.

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沈滯은 곧 진정될 것이며, 中·長期的으로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增加와 雇傭創出效果로 인하여 獨逸經濟의 成長을 加速化시킬 것이다.

獨逸統一로 인한 內需의 增加로 西獨의 對外輸出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西獨의 輸出市場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잠식할 나라는 日本이 될 것이라는 데 異論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輸出增大에 힘입어 1990년대 중 先進國 經濟成長率의 下向化趨勢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經濟成長率 鈍化는 별로 크지 않을 展望이다.

1990년대에 日本은 國際政治에서 美國과 蘇聯의 세력이 퇴조되는 것과는 반대로 그의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하여 오히려 軍備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 그것의 명분상 이유는 蘇聯이 비록 量的으로 군비를 축소하지만 質的으로는 增加一路에 있다는 日本의 인식과 美國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美國이 축소한 군비만큼 日本은 그것을 늘림으로써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즉, 戰後 日本을 지배해 온 自民黨과 그 政府 그리고 財界의 공통적 꿈은 日本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政治적으로도 大國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霸權主義 思想에 따라 그들은 日本의 軍備가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계속 증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실제로 日本의 防衛費는 GNP의 1%라는 원칙 아래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絕對額이 매년 증가되어 왔다. 日本 국민들 역시 오래 전부터 군축을 위해서 정부의 방위비 삭감투쟁을 벌여 온 社會黨과 共產黨보다 自民黨에게 계속 집권의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 日本의 軍備擴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日本의 軍事力은 어떤 형태로든 增強될 가능성이 크다.

1990년이나 늦어도 앞으로 1~2년 이내에 東·西獨의 통일이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1990년대와 그 이후 國際政治의 勢力構造는 기존의 强大國인 美國·蘇聯 및 中國에 統一獨逸과 日本이 추가되는 5角體制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세력구조의 형성은 앞으로 많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獨逸과 日本의 군사력의 확장에 불안감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NATO의 구조변화와 함께 유럽과 태평양에 새로운 地域安保機構의 창설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實利爲主의 國際秩序 再編

1990년대의 國際情勢는 과거의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으로부터 경제력에 바탕을 둔 利害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으로 轉換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地域的 連繫性에 따라 經濟的 實利를 추구하는 競爭的인 地域化의 추세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再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趨勢에 따라 향후 世界經濟는 1992년 單一市場으로 탈바꿈하는 EC와 美國·캐나다 및 멕시코를 묶는 北美經濟圈, 美國·日本 및 濠洲를 주축으로 하여 韓國·臺灣 및 ASEAN을 연결하는 亞·太經濟圈, 그리고 蘇聯과 동유럽의 경제권으로 나누는 블록경제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최근 동유럽의 변화로 이 지역 국가들이 蘇聯의 영향권에서 벗어남으로써 社會主義 理念的 經濟機構인 COMECON體制가 와해되고 東歐國家들이 地域的 經濟統合體인 EC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COMECON經濟圈은 소멸되고 EC經濟圈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물론 여기에도 變數는 있다. 獨逸의 統一로 東西獨의 經濟統合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統一獨逸이 주변국가들과 더불어 中歐經濟圈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EC가 이 中歐經濟圈을 域內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럽經濟圈이 兩分될 것으로 보인다.

COMECON經濟圈이 해체되는 경우에 孤立된 蘇聯은 短期的으로 EC나 中歐經濟圈에 참여하지 않는 東歐國家와 蘇聯邦으로부터 獨立된 국가들을 묶어서 별도의 새로운 經濟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經濟圈은 西方 先進國이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脆弱性 때문에 自力更生力

을 갖지 못하여 獨自의 經濟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은 점진적으로 EC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EC의 準會員國의 地位를 얻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밖에도 蘇聯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中國의 지역발전 전략, 韓半島의 긴장완화, 그리고 日本의 隣接國에 대한 협력과 지원 등을 전제로 하여 中國이 구상하고 있는 南北韓·日本·蘇聯 및 中國으로 이루어지는 東北亞經濟圈은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東北亞經濟圈은 蘇聯과 中國의 勞動力, 日本과 韓國의 資本 및 技術을 서로 결합하여 分業體系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에 그것은 亞·太地域의 中心經濟圈으로 浮上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世界經濟의 地域化 趨勢 외에도 社會主義 국가들의 世界經濟에의 統合 움직임도 1990년대 實利主義의 國際秩序를 형성해 나가는 過程에서 중요한 特徵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自國의 심각한 經濟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西方世界와의 交易과 資本去來 확대 및 技術導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으로 가능한 한 모든 國際經濟機構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⁶⁾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 蘇聯은 서방의 각종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목표로 읊서버자격이라도 얻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美國의 協調를 요청하고 있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IMF와 IBRD에 가입한 中國은 앞으로 GATT가입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天安門事態 이후 中國의 執權層이 保守主義 性向의 政策을 추구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GATT가입 승인을 획득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한편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GATT회원국인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도 東西和解의 분위기 속에서 늦어도 2~3년 이내에 GATT와 IMF체제에 同參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6) *Financial Times*, February 21, 1990.

III. 1990年代의 國際經濟 環境

東西和解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된 가운데 시작된 1990년대에 世界經濟는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戰後 유지되어온 美國의 주도권 약화와 힘의 分散(diffusion of power)에 따른 世界經濟의 多極化, 이러한 構造的 變化에 對應하는 92년 EC統合 등 지역결속의 강화, 保護主義와 雙務主義의 擴大 속에 추진되는 새로운 多者間 交易秩序의 모색, 그리고 社會主義圈의 世界經濟體制에의 편입 등이 90년대 國際經濟 環境의 특징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1. 經濟的 多極體制的 展開

(1) 背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美國의 월등한 經濟的 優位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自由世界의 經濟秩序가 構造的 變化를 보이고 있다. 世界經濟 構造的 變化는 첫째, 工業化와 技術의 擴散에 의한 經濟力의 분산과 世界經濟의 글로벌化 진전, 둘째, 西獨 등 유럽제국과 日本 및 아시아 NICs의 競爭力 向上과 이에 따른 國際比較優位構造的 變化, 셋째, 美國經濟의 상대적 地位弱化, 넷째, IMF體制 崩壞와 GATT體制的 弱화로 인한 國際經濟體制的 불안정 등에 기인한다.⁷⁾ 이러한 國際經濟構造的 變化 속에 美

7) Bergsten, C. F., *Ibid.*, p.59.

國의 世界經濟에서의 리더십이 약화된 반면 日本과 西獨은 美國과의 經濟的 격차를 줄이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80년대까지 世界經濟는 軍事力을 바탕으로 한 美·蘇의 兩極體制를 유지해 왔으나 80년대 말 이후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政策과 東歐社會主義國家의 民主化와 改革의 추진으로 새로운 構造改編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兩極體制의 中樞勢力이었던 美國과 蘇聯이 89년 12월 몰타頂上會談에서 冷戰體制의 종식과 平和共存을 선언함에 따라 東西緊張이 급격히 緩和되고 있으며, 이러한 東西緊張의 완화는 東歐에서의 蘇聯軍 철수 개시, 美國의 군축, 東西獨 統一 움직임의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새로이 형성될 國際經濟體制는 軍事力보다 經濟的 勢力版圖에 따라 형성될 것이며, 이데올로기의 퇴조에 의하여 美蘇를 중심으로 한 兩大블록의 결집력이 약화됨으로써 國家 및 地域利益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多極化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 世界經濟의 多極化

90년대 世界經濟의 多極化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經濟力을 반영하여 美國, 統合EC 및 日本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을 목표로 域內市場을 統合하고 있는 EC는 이미 世界最大의 貿易圈일 뿐만 아니라 GDP에 있어서도 美國과 같은 수준이다. EC는 對內的으로 90년대중 經濟通貨同盟(EMU)과 政治的 統合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하나의 經濟圈으로 國際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外的으로는 獨逸의 統一에 따른 東獨의 EC加入과 폴란드·헝가리·체코에 대한 準會員國資格 부여로 EC의 外延的 擴張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EC統合의 深化와 外延的 擴大로 유럽經濟는 추가로 1%포인트의 成長이 가능하여 日本에 버금가는 활력을 보임으로써 國際經濟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III-1〉 美國・日本・EC의 主要經濟指標 (1988年 현재)

	경상 GDP (10억달러)	商品輸出 (10억달러)	商品輸入 (10억달러)	貿易依存度 ¹⁾ (%)
美 國	4,847.3	319.7	446.5	15.8
日 本	2,851.7	259.8	164.8	14.8
E C	4,773.2	1,037.8	1,017.3	43.1

주 : 1) 商品輸出入/經常GDP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pr. 1990.

WEFA, *World Economic Outlook*, Vol. 1, Apr. 1990.

日本은 戰後 가장 급격한 성장을 보여 GDP 규모가 1950년 美國의 4% 수준에서 1988년에는 59% 수준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중 世界最大의 債權國으로 부상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핵심산업기술에 있어서도 主導國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90년대 중 美國은 財政・貿易의 兩大赤字의 해소에 몰두하고, EC는 域內統合의 완성에 큰 관심으로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日本은 이 틈을 이용하여 勢力의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美・蘇의 軍縮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보유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日本의 國際社會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2차대전 직후 世界總生産의 40~45%를 점하면서 世界經濟에서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나, 日本과 西獨의 國際的 地位가 浮上하였는데 반해 세계 최대의 債務國으로 전락하는 등 世界經濟에서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財政・貿易의 兩大赤字를 해결하기 위해 交易相對國에 대하여 雙務主義와 相互主義를 통해 輸入規制와 市場開放壓력을 가함에 따라 美國의 對外影響力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 經濟力의 상대적인 地位強化와 對外影響力 감소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90년대 중 單一國家로는 세계 최대의 市場으로 그리고 國際政治・軍事的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남게 될 것

이다.

한편 蘇聯은 1988년 현재 GDP가 美國의 28% 수준이고 輸出은 34% 수준이나 經濟的으로 심각한 沈滯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蘇聯은 大統領制와 多數黨制의 도입, 私有財産의 인정 등 體制改革을 시도하고 있으나 經濟的 效果가 아직 可視化되지 못하고 있고 改革의 진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90년대 안에 經濟大國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0년대의 世界經濟는 美國·統合EC 및 日本을 중심으로 한 三極體制(tripolar system)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⁸⁾

(3) 多極體制的 展開方向

90년대 世界經濟의 多極化는 美國의 國際經濟에 대한 리더십 弱化를 보완해 줄 수 있는 國家가 출현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향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1世紀는 日本主導(Pax Nipponica)時代 또는 獨逸主導(Pax Germanica)時代가 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오고 있지만, 80년대 후반 美國의 生産性 회복과 수출의 증가를 들어 美國主導(Pax Americana)時代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⁹⁾ 이처럼 어느 單一國家도 世界經濟를 主導하는 것이 不可能해진 상황에서 主要國 사이에 主導權 쟁탈전이 벌어질 경우 世界經濟는 상당한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歷史的으로 보아도 英國主導의 國際秩序(Pax Britanica)가 와해되는 과도기였던 20세기 前半期에 世界經濟는 매우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낸 바 있다.

이미 多極體制的 갈등은 美國과 日本 및 西獨이 속한 EC가 自國 또는 地域의 經濟的 利益과 國際貿易 不均衡의 시정을 위하여 新保護主義를

8) Bergsten, C.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 Presentation to the Commemorative Symposium for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Taisho Research Institute, May 21, 1990.

9) Huntington, S.P., "The U.S.-Decline or Renewal," *Foreign Affairs*, Winter, 1988/1989.

강화함으로써 표출되고 있다. 美國은 雙務主義와 公正貿易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輸入規制를 강화하고 交易相對國에 市場開放壓力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88년의 美 綜合貿易法에 의한 優先協商國 指定은 GATT로부터도 비난의 對象이 된 바 있다. EC도 反덤핑조치의 강화와 現地進出 企業에 대한 現地部品使用 의무화규정 등으로 保護主義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世界經濟 主導國간의 갈등은 地域主義로까지 展開되고 있다.

世界經濟의 多極化에 따른 不安定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美國·日本 및 統合EC間의 긴밀한 협조관계에 바탕을 둔 共同指導體制(collective leadership)의 구축이 불가피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¹⁰⁾ 이는 情報, 資本 및 技術의 글로벌化에 따라 一國의 經濟的 利害關係가 他國과 직결됨으로써 相互協力 없이는 問題의 해결이 불가능한 데 기인한다. 協力の 대표적 예로는 1985년 G5의 플라자協定, G7의 巨視政策協調와 多者間貿易秩序 確立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協商 및 社會主義改革의 支援을 위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設立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90年代에는 참고환율대(reference ranges)의 도입을 통한 國際通貨制度의 改善,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 타결과 보다 적극적인 교역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환경의 개선 등이 主要國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갈 것이다.

2.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深化

(1) 背景

地域主義는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經濟的인 利害關係를 같이 하는 特定 國家群끼리 自由·無差別原則을 局地的으로 적용하려는 經濟統合 움직임

10) Bergsten, C.F., *Ibid.*, p.14.

으로, 2차대전 후에 西유럽에서 대두된 다음 주로 開途國으로 파급되어 갔다. 그러나 70年代까지 이러한 地域主義는 世界經濟에 대한 美國의 리더십, 統合地域의 구조적 취약성과 성과부진 등으로 그 對外的 影響力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70年代와 80年代에 걸쳐 國際經濟環境은 ①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붕괴에 따른 國際通貨·金融制度의 不安定과 國際貿易의 불균형 심화 ② 美國의 주도권 약화와 힘의 분산에 의한 世界經濟의 多極化 ③ 國際經濟 不均衡과 通商摩擦의 격화 등으로 그 不確實性이 높아졌다. 이처럼 불확실해진 經濟環境下에서 각국은 自國의 經濟問題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隣接國 또는 經濟的 利害를 같이 하는 國家들과 結束하여 共同利益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背景下에 80年代 들어 EC는 域內市場 統合을 추진하게 되었고, 美國은 캐나다와 FTA를 締結하였으며, 아시아·太平洋 國家들은 亞·太經濟協力(APEC)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욱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推進과 東歐의 開放은 汎유럽經濟圈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地域主義 추세에 새로운 變數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90年代 世界經濟의 地域主義는 EC統合을 중심으로 한 汎유럽經濟圈의 형성, 이에 대응한 아시아·太平洋經濟의 結束強化 및 北美의 FTA 결성 등으로 深化될 展望이다.

(2) 汎유럽經濟圈의 형성

汎유럽經濟圈은 EC, EFTA 및 일부 COMECON 國家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性格 및 方向은 EC統合 展望, EC의 對EFTA 統合戰略 및 東歐의 改革·開放의 정도 및 속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汎유럽經濟圈이 형성되는 경우, 이는 세계최대의 人口 및 市場을 가진 經濟圈으로 國際經濟秩序에 막대한 影響力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우선 EC는 1992년까지 12個國에 3億 2千萬名의 人口를 가진 域內市場

〈表 III-2〉 主要經濟圈의 GDP 構成(1988年 現在)

(單位：%)

北美	日本	유럽		蘇聯	世界	
		西歐	東歐			
24.7	9.4	32.2	27.1	5.1	10.6	100.0

자료：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5カ年經濟豫測」，データ集，1990.1.

을 완전히 統合하는 經濟統合(economic integration)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유럽中央銀行과 單一通貨를 창출하는 經濟通貨同盟(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의 결성뿐 아니라 政治的 統合까지 제안하는 등 EC統合을 가속화하고 있다. 市場統合에 있어서는 域內 非關稅障壁의 제거를 위한 282個의 규칙제정에 대해 EC집행위의 제안이 완료되는 등 制度整備의 진전과 ① 域內企業의 買受·合併 등 機能的 統合의 활발한 진행 ② 美·日의 多國籍 企業의 적극적 진출 및 ③ 國民의 統合에 대한 높은 지지도 등에 힘입어 統合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C通貨統合의 경우는 1989년 12월 9일 스트라스부르그의 EC頂上會談에서 이를 위한 政府間協議體를 90年末에 構成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지난 4월 28일 더블린에서 개최된 EC特別頂上會談에서는 EC의 政治的 統合을 위한 政府間 협의체도 금년말까지 구성한다는 제안이 채택됨으로써 EC統合은 그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와 같이 EC가 經濟的 統合뿐만 아니라 政治的 統合까지 서두르고 있는 것은 ① 統一이 가시화됨으로써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獨逸을 EC에 붙잡아 두어야 하는 EC會員國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고, ② 西獨으로서도 獨逸의 統一에 따른 주변국의 不安을 해소시키기 위해 EC統合의 가속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③ 東歐의 改革과 民主化에 대하여 EC의 집단적 지원이 소망스럽고, ④ 胎動하고 있는 유럽新秩序의 형성에 있어 美·蘇의 영향력을 가급적 배제하고 EC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EFTA는 EC의 統合推進과 그 影響力 擴大에 따라 EC와의 經濟統合을 추진하고자 89년 12월 19일 EC-EFTA의 共同閣僚會談에서 1년 내에 유럽經濟領域(European Economic Space : EES)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EFTA는 이미 1972년에 EC와 工產品 自由貿易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EES는 EFTA와 EC간 非關稅障壁의 상당부분을 撤廢함으로써 自由貿易이 더욱 촉진되고, 規格의 표준화 등 일부 EC市場單一化의 내용이 EFTA에도 擴大通用되는 형태의 經濟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ES創設은 18個國 3億5千萬 人口의 세계최대의 經濟블록 탄생의 의미를 미한다.

한편 EC와 EFTA가 統合한 EES를 중심으로 형성될 汎유럽經濟圈은 西獨과 統一을 이룰 東獨의 EC加入, 民主化와 經濟改革이 상당부분 진척된 東歐國家에 대한 準會員國 대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汎유럽經濟圈에는 獨逸·英國·프랑스 등 先進工業國과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 中進國 및 헝가리·폴란드·체코 등 東歐諸國 등 다양한 그룹이 포함된다. 따라서 域內先進國의 資本·技術과 中進國 및 東歐의 勞動力이 結合하여 尖端技術 및 汎用技術産業分野(電氣·電子, 自動車, 機械 등)에 있어 아우타르키(autarky)的 産業構造가 형성됨으로써 域內에서는 自由貿易이 확대되는 반면, 對外的으로는 분야별로 保護主義的 색채를 띠 가능성도 있다.

결국 汎유럽經濟圈 形成은 이데올로기의 퇴조로 軍事的 균형에서 經濟的 균형으로 전환되어 가는 90년대의 世界經濟에서 유럽의 國際的 地位를 강화시킴으로써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를 深化시키는 등의 여러가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 아시아·太平洋 經濟의 地域化

1989年 11月 濠洲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太平洋地域 12個

國¹¹⁾의 閣僚會議로 시작된 亞·太經濟協力(APEC)은 90年代의 새로운 國際經濟秩序 形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亞·太經濟協력이 實效를 거두는 경우, 이는 아시아·太平洋經濟가 가지는 規模와 比重 및 成長의 ダイナ미즘(dynamism)으로 미루어 보아 90年代 世界經濟 成長과 貿易環境 變化에 重要하게 寄與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太平洋 經濟協力の 움직임은 1950年代부터 있어 왔으나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을 통하여 최초로 域內國家間의 公式的인 協力體制로 전환되었으며, 이같은 發展을 자극시킨 背景으로는 최근 진전되고 있는 世界經濟의 새로운 秩序 形成을 향한 두 개의 상반된 움직임 즉, ① 多者間 自由貿易 增進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의 추진과 ② EC統合 등 世界經濟의 블록化 추세를 들 수 있다.

특히 美·日間의 巨視的 不均衡은 最近 世界經濟의 질서를 위협하는

〈表 III-3〉 亞·太經濟의 成長과 比重

(單位: %)

	亞·太地域						서유럽	世界	
	北 美	日 本	ANIEs	ASEAN	中 國	오세아 니아			
GDP 比重 (1988)	24.7	9.4	1.7	1.5	3.5	1.4	42.2	27.1	100
輸 出 比 重 (1987)	14.5	9.6	7.4	2.2	1.6	1.4	36.7	39.9	100
成 長 率 (1983~88)	4.4	4.4	8.8	4.0	10.0	4.6	—	1.5	3.4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國統計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各國統計

OECD, *Economic Outlook*, 各國統計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5カ年經濟豫測」, データ集, 1990.1

11) 亞·太閣僚會議 참가 12個國은 韓國·日本·美國·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및 ASEAN 6個國 즉,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일랜드·필리핀·말레이시아·부르나이 등이다.

要因이 되어 왔으며, 이의 解消를 위한 美·日의 政策調整은 종래의 G-5, G-7 體制 속에서 先進國間 努力으로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美·日關係와 더불어 최근 進行되어온 美·아시아 先發開途國(ANIEs)間의 不均衡 해소노력이 90年代를 통하여는 亞·太經濟協力(APEC)을 중심으로 한 域內國家間的 巨視經濟政策 調整 및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을 통한 國家間的 共同利益을 추구하는 次元의 노력으로 轉換될 것으로 보인다.

亞·太地域國家들은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의 성공적 妥結이 향후 亞·太地域 發展에 중요하다는 점에 意見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이같은 合意는 이들 國家의 貿易量이 世界 總貿易의 거의 4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過程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¹²⁾

第1次 亞·太閣僚會議에서 亞·太國家들은 自由開放主義 協力原則 아래 APEC을 EC와 같은 트레이딩 블록(trading bloc)으로 發展시키지 않을 것과 世界貿易의 自由化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合意하였다. 亞·太閣僚會議(APEC)은 第2次會議를 90年度에 싱가포르에서 開催할 것과 第3次會議를 91年度에 서울에서 開催할 것을 決定함으로써 90年代에 걸쳐 그 活動이 활발해질 것으로 展望되며, 궁극적으로 亞·太經濟協力の 進行方向과 目標은 ① 多者間 自由貿易의 증진과 世界經濟 및 貿易에 있어서의 責任分擔 ② 美國과 아시아 貿易相對國間的 經濟的 緊張關係의 완화 ③ 1992年 EC統合의 폐쇄 指向性的의 완화 ④ ASEAN 및 ANIEs의 經濟能力 擴大 및 産業構造調整 支援 등으로 그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亞·太經濟協力の 協力構造는 장기적으로 OECD와 유사한 形態로 발전될 것으로 展望되나 아직까지는 閣僚會議 이외에 協力を 推進하기 위

12) 캔버라에서 開催된 第1次 亞·太閣僚會議에서 참가 12個國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成功的 妥結을 유도하기 위해 12個國 商工長官會議를 1990年 9月과 12月에 밴쿠버와 브뤼셀에서 각각 開催할 것을 決議하였다.

한 下部組織의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이며, 이같은 機構上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PEC은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 등 域內 기존 協力機構의 活用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美國의 國務長官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가 「亞·太協力は 장차 브레튼 우즈 體制에 버금하는 중요한 國際機構로 발전할 것」이라고 APEC의 役割과 重要性을 강조하였듯이, 亞·太經濟協力の 方向과 協力の 實效性 여부는 앞으로 亞·太經濟의 進路는 물론 世界經濟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現段階에서 볼 때 亞·太經濟協力の 장기적 展望이나 成敗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앞으로 亞·太經濟協力の 方向과 進展은 對外的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의 結果, EC統合의 進行結果 등 國際經濟環境變化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對內的으로는 亞·太地域에서의 經濟的 利害關係의 發展, 예를 들면 亞·太經濟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亞·太地域內에서의 經濟的 影響력의 均衡關係, 亞·太經濟協力에서 ASEAN의 利害關係, 中國의 經濟開放 推移와의 亞·太經濟協力圈內로의 수용문제 등의 解決과 調整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亞·太經濟協力の 性格이나 向方이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이 公式적으로 終了되고 EC統合이 보다 구체화되는 時點인 1991년의 서울 亞·太閣僚會議(第3次)를 계기로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향후 3~4年) 亞·太經濟協力の 내용은 이미 합의된 바와 같이 域內貿易·投資의 증진, 人力 및 技術開發, 통신·관광·에너지·수산 등 共通 관심분야에 대한 可視的 協力에 그 重點을 둘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亞·太經濟協力の 向背는 앞에서 言及했듯이 域內 主要國間 經濟的 利害關係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方向으로 展開될 것이다.

첫째, ASEAN 6個國은 亞·太經濟協力の 始作단계에 보였던 反應과

같이 亞·太經濟協力으로 인하여 ASEAN 自體의 結束力이 弱化되는 것과 同 協력이 美國과 日本에게 地域內의 主導權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SEAN은 다른 한편으로 開途國의 立場에서 亞·太經濟協력이 가져다 주는 장기적인 經濟的 利益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亞·太經濟協力の 妨害要因으로 作用하지는 않을 것으로 判斷된다.

둘째, 亞·太經濟協力は 장차 그 地政學的 위치나 經濟的인 잠재력으로 인하여 中國을 協力圈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에 부딪칠 것이며, 中國의 加入은 亞·太經濟協力の 相對的인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中國의 加入은 일부 ASEAN 國家들의 政治的인 이유로 ASEAN이 합의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한 天安門 事態 이후 經濟開放化의 지연으로 그 加入時點이 늦추어질 展望이다. 많은 나라들은 3~4年 내에 中國의 指導層이 交替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같은 世代交替와 더불어 추진될 中國經濟의 改革·開放은 亞·太經濟協力の 새로운 轉機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90年代 亞·太經濟의 秩序를 決定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變數는 美·日關係의 發展이다. 美國의 對日貿易赤字는 1971年의 20億弗에서 1989年에는 460億弗로 深化되었으며, 日本의 對美 直接投資는 1989年 現在 750億弗에 달하고 있다. 또한 80年代에 日本은 世界最大의 債權國으로 부상한 반면 같은 기간에 美國은 世界最大 債務國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美國은 亞·太地域에서 自國의 經濟的 영향력이 弱化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東아시아가 日本이 主導하는 또하나의 經濟圈 (East Asian Bloc)으로 發展할 수 있는 可能性과 이같은 日本主導下의 東아시아 經濟블록이 北美經濟圈(美國-캐나다-멕시코)의 對應勢力으로 發展할 수 있는 점에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亞·太地域內에서의 美·日間 經濟的 利害關係를 고려할 때 앞으로 美國은 亞·太經濟協力を 통하여 美·日間의 巨視的 不均衡의 해소는 물론 나아가 亞·太地域에서의 美·日의 經濟的 영향력의 均衡關係를 유지하려는 方向으

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亞·太經濟協力は 이같은 美·日間의 均衡關係의 發展을 전제로 持續·展開될 것으로 보이나 어떤 형태로든 地域共同體의 性格을 띤 經濟圈의 形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美國의 自由貿易圈(FTA) 형성

美國은 EC統合에 대응하고, 약화된 美國의 國際經濟上의 지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貿易收支 赤字를 해소하기 위하여 自由貿易圈(Free Trade Area)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美國은 短期政策으로 美 通商法에 의거한 市場開放 壓力과 不公正貿易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한편, 長期政策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등 多者間 貿易協商을 추진하고 있다. FTA政策은 美國의 中期的 通商政策으로서 短期政策을 보완하는 한편, 長期政策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妥結 등 多者間 自由貿易體制의 확립을 촉진하는 政策으로 평가될 수 있다.

美國은 이미 캐나다와 1989년 1월 1일부터 10년에 걸쳐 關稅와 대부분의 非關稅障壁을 撤廢하기 위한 FTA를 締結하였으며, 멕시코와도 부분적인 FTA締結을 목적으로 한 協商의 개시에 합의하는 등 北美經濟圈의 結束을 다지고 있다. 美國은 日本·濠洲·ASEAN·臺灣·韓國 등 주요 太平洋沿岸國들과도 개별적으로 FTA를 締結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推進中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妥結되지 않을 경우 漸進的 市場自由化클럽(Market Liberalization Club) 形成을 위하여 아시아國家들과 FTA締結을 위한 論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5) 地域主義化가 世界經濟에 미치는 영향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는 自由貿易主義的 性格과 保護主義的 性格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地域主義에 대해서는 世界貿易의 自由化에 기여한다는 肯定的 視角과 排他的 保護主義로 흐를 것이라는 否定的 視角이 공존하고 있다.

肯定的 視角은 ① 國際經濟의 相互依存性 擴大로 1930年代와 같은 排

他的 블록의 형성이 불가능하고 ② 短期的으로 貿易轉換(trade diversion)이 域外에서 域內로 일어나더라도 地域經濟의 活性化에 의하여 長期的으로는 貿易創出效果(trade creating effect)가 발생하여 貿易이 擴大되며 ③ 地域主義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각 블록이 開放된 地域主義(open regionalism)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결국 多者間主義의 次善策이 될 수 있으며 世界貿易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否定的 視角은 ① 地域主義 심화의 계기가 된 EC統合은 美·日에 비해 뒤떨어진 EC産業의 競爭力의 회복을 統合目標의 하나로 삼고 있어 基本的으로 保護主義의 性格을 갖고 있고 ② 地域主義의 심화에 따른 地域間 對立은 多者間主義의 퇴조와 貿易戰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 經濟블록에 참여하지 못한 國家를 고립시키는 등 地域主義가 世界經濟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見解이다.

현실적으로 90년대 地域主義의 性格은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結果와 國際經濟 不均衡의 向背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만일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이 실질적인 成果가 없이 끝나고 國際經濟의 不均衡이 심화되는 경우, 雙務的 保護主義가 강화되고 地域主義는 排他的 블록化로 나아감으로써 世界經濟秩序는 혼미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가 多者間 貿易秩序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妥結될 가능성이 높고, 東西緊張의 완화에 따른 軍縮으로 美國의 財政赤字 및 貿易赤字가 축소되어 國際經濟의 不均衡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地域主義도 一時的으로는 保護主義 傾向을 띠는 것이나 長期的으로는 地域間에 保護障壁이 弱化되어 世界貿易의 擴大에 기여할 것으로 展望된다.

3. 世界交易秩序의 變化

(1) 背景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거대한 財政赤字와 經常收支赤字, 그리고 日本과 西獨, 아시아 先發開途國들의 經常收支黑字, 유럽의 높은 실업률, 外債負擔과 높은 인플레이로 인한 開途國經濟의 침체 등 1980年代 世界經濟의 불균형은 關連국가들의 巨視經濟 政策 및 經濟構造 調整 등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世界交易 秩序에도 커다란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¹³⁾

특히 1980年代에 들어와 누적된 美國의 經常收支赤字는 선진국 내 商品交易에 대한 保護貿易主義를 심화시켜 國家의 經濟政策 決定이 市場經濟의 效率性에 근거하기보다는 政治·福祉·國防 등 經濟效率性 이외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新重商主義(neomercantilism) 趨勢의 원인이 되었다. 先進國內 新重商主義추세의 특징을 보면 첫째, 關稅의 輸入規制措置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자 非關稅障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둘째, 分野別 相互主義(sectoral reciprocity)를 내세운 貿易相對國의 輸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으며 셋째, 非關稅障壁과 輸入開放壓力이 多者間主義보다는 雙務主義에 의존하는 傾向이 높아지고 넷째, 美國과 캐나다의 自由貿易協定 締結, EC의 市場統合 推進 등 世界經濟의 블록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끝으로 최근 美國議會와 學界의 극히 일부에서는 貿易相對國의 市場占有率을 協商對象으로 하자는 소위 管理貿易 (managed

13)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국의 의무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Bergsten, C.F., *America in the World Economy: A Strategy for the 1990s* Washington, D.C.: IIE, 1988과 Cline, W.R., *American Trade Adjustment: The Global Impact*, Washington D.C.: IIE, 1989에 잘 정리되어 있다.

trade)의 가능성을 論議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世界交易秩序의 또 한 가지 특징은 國際交易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比重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서비스交易, 知的所有權 保護, 外國人 投資 施策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多者間秩序體制를 세워 나가는 노력이 可視化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이 開途國 내 貿易歪曲效果를 지닌 外國人投資施策과 知的所有權의 남용을 방지하고 開途國보다 比較優位가 있는 서비스분야의 交易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우루과이 라운드協商과 그 展望

先進國內 상품교역에 대한 保護貿易主義가 심화되고 새로운 분야인 서비스交易, 知的所有權 保護, 外國人投資 施策 등에 대한 多者間秩序體制의 不在 등의 배경하에서 世界交易 秩序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GATT의 第8次 多者間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1986년에 出帆하였으며 1990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과거의 多者間貿易協商과 비교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까지 GATT體制 밖에서 관리되어 왔던 農產物·纖維·鐵鋼 등의 交易問題와 反덤핑, 補助金 및 相計關稅, 긴급 수입규제조치 등 開途國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課題들이 協商議題에 포함되어 있어 開途國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 점이다. 따라서 금번 協商에서는 開途國의 主要關心分野와 先進國의 主要關心分野 사이에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協商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多者間貿易協商을 주도해 왔던 先進國 특히 協商主導國인 美國과 EC가 開途國과의 協商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經濟的 利害

14) 금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서비스協商 進行 및 爭點은 Jaramillo, A. F., *Seminar I on Uruguay Round Services Negotiation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89에 잘 要約되어 있다.

得失에 관해 讓許할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의제가 15개나 되며 각 課題마다 협상참가국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번 協商의 결과를 지금 段階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結果를 展望하기에 앞서 우선 美國과 EC의 상반된 利害關係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992年 市場單一化를 推進하고 있는 EC는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이 예정대로 종료되기를 원하며 協商結果의 내용 역시 최소한의 成果만을 얻어 내고 보다 실질적인 成果는 域內國家들과 EC統合을 통해 얻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美國은 世界經濟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EC가 域外國家들에 대해 差別的인 保護主義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EC를 가능한 한 多者間體制로 끌어 들이려는 努力을 할 것이다.¹⁵⁾ 즉 美國은 協商을 豫定대로 끝내고 합의에 의해 추후 協商을 계속하자는 立場을 취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主要關心分野인 農產物과 서비스 協商이 自國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協商을 형식적으로 끝내고 추후 雙務的인 접근방법에 의존하려는 可能性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0年代 世界交易秩序의 制度的 根幹을 이룰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結果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協商은 1990年末에 예정대로 끝이 나되 農產物·纖維·서비스 등 主要協商議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成果를 얻지 못하고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事項에 관해서만 합의되는 것이고, 두번째 시나리오는 1990年 말까지 실질적인 成果를 얻기 힘든 協商議題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종료 이후에도 합의된 일정에 따라 協商을 계속하여 실질적인 成果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15) Bergsten, *Ibid.*, 참조.

(3) 1990年代의 世界交易秩序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이 전자의 형태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1990年代 世界交易의 多者間秩序體制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商品交易 뿐만 아니라 서비스·기술·투자의 국제적 흐름이 雙務主義에 의해 管理되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이 후자의 형태로 종료될 경우에는 1990年代 世界交易의 多者間秩序體制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強化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즉 協商 자체의 실질적인 成果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1990年末 이후에도 多者間貿易 協商이 계속됨으로써 世界交易秩序가 多者間次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1980年代末의 非關稅障壁, 雙務主義의 擴散, 管理貿易의 可能性 등을 效果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結果가 어느 쪽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인가를 決定하는 중요한 變數 중의 하나는 協商에 참가하는 開途國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 쪽 시나리오로 協商結果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開途國의 강한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開途國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美國 입장을 지지하는 先進國들이 開途國의 關心事項을 수용할 의지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協商에서 開途國과 先進國의 主要關心分野가 동시에 협상의제에 포함된 점과 최근의 國際交易秩序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후자의 可能性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2年の EC市場統合 推進과 최근 蘇聯·中國·東歐 등의 改革은 이러한 可能性을 좀더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EC市場統合으로 EC의 協商力이 제고됨에 따라 美國·日本·캐나다 등 域外先進國들은 世界交易問題를 多者間次元의 접근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으며, 非市場經濟圈의 世界交易 參與可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多者間 交易秩序 維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一例로 헝가리가 최근 GATT의 정식회원국이 되었고, 中國은 이미 GATT의 옵

서버國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관하고 있으며, 蘇聯도 머지 않아 옵서버資格을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世界交易秩序의 성격이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結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80年代에 누적된 美國의 財政赤字와 經常收支赤字로부터 기인하는 世界經濟의 不均衡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이 성공적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GATT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交易秩序 體制의 실천적 移行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美國經濟를 중심으로 한 世界經濟의 불균형이 1990年代에 들어와 이렇다 하게 改善되지 못하게 되면 非關稅貿易障壁 및 輸入開放壓力이 더욱더 雙務主義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管理貿易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최근의 東西關係 개선으로 美·蘇 兩國의 군비감축이 가능해질 경우 美國의 財政赤字幅이 크게 줄어들어 世界經濟의 不均衡解消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1990年代의 世界交易秩序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 妥結과 EC統合, 東歐의 改革 및 東西和解 등을 통해 多者間主義(multilateralism), 無差別主義(nondiscrimination), 自由貿易主義原則(free trade principle)에 좀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可能性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世界經濟不均衡이 악화되어 雙務主義, 地域主義 및 管理貿易主義가 世界交易 秩序를 주도하게 되는 悲觀論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社會主義圈의 世界經濟에의 統合

1990년대 世界經濟의 主要한 特徵의 하나는 過去 世界經濟에 대해서 閉鎖的이었던 社會主義圈의 대부분 國家들이 自國의 經濟를 市場經濟體

制로 定着化시키면서 世界經濟에의 統合을 활발히 展開할 것이라는 점이
다. 社會主義 國家들의 그와 같은 世界經濟에의 統合 움직임은 市場經濟
가 舊體制下에서 痼疾化된 經濟問題를 解決해주는 奇蹟을 제공해 줄 것
이라는 期待 때문이다.¹⁶⁾

(1) 蘇聯 및 東유럽

1990년대에 蘇聯經濟가 世界經濟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統合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蘇聯經濟의 市場化 改革의 速度와 美國과
西유럽 國家들이 얼마나 積極的으로 蘇聯에 대한 經濟的 支援을 제공하
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最近에 리즈코프(Nikolai Rizhkov) 總理의 承認을 거쳐 發表된 計劃에
의하면 蘇聯의 市場化 改革의 推進期間은 準備期間(1990년), 形成期間
(1991~1992년) 및 發展期間(1993~1995년)으로 하여 國家의 價格統制機
能의 撤廢와 더불어 價格을 現實化하고, 民間銀行의 設立과 金利現實化
를 통하여 金融制度를 整備하며, 새로운 稅制와 私有財產法, 反獨占法
등의 導入으로 自由市場機能을 強化하는 한편, 政府의 機能은 調整에 국
한시킨다는 것이다.¹⁷⁾ 이 計劃이 순조롭게 進行된다면, 1993년부터 蘇聯
經濟는 본격적으로 世界經濟에 統合되어 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蘇聯은 제2段階인 形成期間 중에 에너지·鐵道·航空·海運 및
通信部門을 除外한 國營企業의 60퍼센트를 私有化하고 그들 私有化企業
들과 外國資本의 合作을 통해서 世界市場에 積極的으로 參與한다는 經濟
의 國際化 戰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市場化와 分權化가 이루어진 部門, 특히 對外經濟部
門에서 管理經驗의 不足으로 적지 않은 混亂과 問題點이 야기됨으로써

16) Grunwald, H. A., "New Challenges to Capitalism," *Fortune*, May 7, 1990.
p.94.

17) *Pravda*, 1990.5.22.

市場經濟로의 급격한 移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市場化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民間保有貨幣額 4,000~5,000억루블이 일시에 購買力을 갖게 될 것이므로 深刻한 物資의 供給不足 狀態에 있는 蘇聯經濟는 엄청난 인플레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蘇聯經濟의 市場化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990년대에 蘇聯經濟가 廣範圍하게 世界經濟에 統合을 實現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또한 對外的으로 蘇聯은 막강한 軍事力을 가진 超強大國이기 때문에 美國을 비롯한 西方 先進國들의 蘇聯에 대한 經濟協力에도 한계가 있다. 고르바초프의 經濟優先改革政策으로 인한 國防費 削減, 東유럽·蒙古·베트남 주둔 蘇聯軍의 철수로 軍의 위상이 弱화된 데 대한 軍部の 反撥이 커지고 이에 便乘한 國家官僚 등 強硬保守派의 反페레스트로이카 내지 反고르바초프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때문에 美國이 經濟援助를 擔保로 蘇聯에 대해 과감한 軍備縮小를 要求한다고 하더라도 고르바초프가 거기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은 90년대에도 軍事的 強大國으로 남게 되고 그에 따라 西方으로부터의 經濟協力에 制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經濟의 世界經濟에의 統合範圍는 繼續 擴大되어갈 可能性이 크다. 앞으로 고르바초프의 退進이나 페레스트로이카의 成敗에 相關없이 蘇聯의 對外 經濟開放 政策은 繼續 推進될 것이며, 蘇聯邦共和國들의 獨立 또는 軍事 및 外交權을 除外한 自主權이 認定됨으로써 經濟問題를 獨自적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外國資本의 對蘇進출이 늘고, 각 共和國들은 西方國家들과 經濟關係를 擴大하여 점차적으로 對外依存度を 높여 갈 것이다. 더욱이 獨立을 宣言한 발트3國과 유럽地域의 몇몇 共和國들은 UN에서의 獨立的인 會員國 資格을 活用하여 EC準會員國의 地位를 얻으려고 할 可能性도 있다.

한편 東유럽國家들은 1990년에 西獨과 經濟的 統合을 이루게 될 東獨

을 비롯하여 이미 GATT會員國으로서 最近에 市場經濟體制로 移行한 폴란드·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빠른 速度로 市場經濟에 統合됨으로써 1992년 EC統合 以後에 EC의 準會員國의 地位를 確保할 것으로 展望된다. 東유럽國家 가운데서 맨먼저 改革을 實施하여 自主企業管理에 의한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體制를 갖추었으나 市場經濟의 핵심인 競爭이 없는 部分的 市場化 改革에 안주함으로써 當面한 經濟問題의 解決보다는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 改革陷穽(reform trap)에 빠져 있는 유고슬라비아도 늦어도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競爭이 認定되는 安全한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하면서 이미 準會員國으로 加入되어 있는 OECD를 비롯한 國際經濟機構에서의 活動을 통해서 世界經濟에의 統合을 本格化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밖의 東유럽國家들도 이미 政治的 民主化를 推進하면서 유럽의 일원으로 同參하려는 의욕을 보이는 한편 市場經濟體制로 移行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國家經濟 역시 政治·社會的인 安定이 確保된 以後에는 必然的으로 世界經濟에 統合하게 될 것이다. 現實的으로 그들 經濟가 얼마나 빨리 回復局面에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西方國家들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經濟 및 技術援助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西方國家들이 유럽復興銀行(EBRD)을 設立하고 제2마살플랜이라고 하는 스트라스부르그 플랜(Strasbourg Plan)을 통해서 東유럽에 대한 經濟的 支援을 具體化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는 過去 어느 때보다 東西間의 經濟的 連帶가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는 年代가 될 것이 틀림없다.

1990년대에 社會主義圈의 世界經濟에의 統合과 關聯하여 關心을 끄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 國家들의 經濟的 유대를 맺어 주었던 相互經濟援助會議(CMEA 또는 COMECON)의 將來問題이다. 고르바초프는 CMEA가 經濟的 側面에서 보다 效率的이고 生産的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CMEA의 存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CMEA國家들이 市場經濟體制로 移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國家들의 結束力에 바탕을 둔 生産

專門化를 이룰 경우 效率性 제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결속을 목표로 조직된 CMEA를 그와 같은 분업체제로 이행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욱이 蘇聯과 東유럽 經濟의 對西方依存도가 더욱 커지고 西方 債權國들의 外部의 壓力과 生活水準의 向上을 要求하는 國民들의 内部의 壓力이 加重됨으로써 社會主義 國家들만의 協力을 目標로 하는 CMEA의 存續은 不可能하다. 그 위에 CMEA 會員國으로서 가장 중요한 東獨이 西獨과 經濟統合을 이루고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比重이 큰 國家들이 CMEA로부터 脫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機構는 당분간 이름만 남을 뿐 實質的인 存在意義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2) 中國 및 北韓

1990年代 中國은 80年代 이래 가속화시켜온 對外開放에서 야기된 國際收支의 不均衡, 外債增加, 收入인플레이의 擴散 등의 問題點들을 解消시키는 政策에 주력하면서 東北亞地域에서의 經濟協力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0年代 中半 이후 中國의 主要政策에 막대한 影響력을 행사해온 鄧小平, 楊尙昆 등 保護性向이 강한 革命一世代의 實質的 退進이 이루어짐으로써 政治的 民主化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經濟改革의 方向이 완전한 市場化로 定着되고 1997年 香港의 中國編入을 계기로 臺灣과의 經濟統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90年代 中半 이후 中國의 이러한 노력은 89年 6月 4日 天安門事態 이후 保守的 政策의 강화 때문에 正會員國으로의 加入이 좌절되었던 GATT參與도 실현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90年代에 中國經濟가 급속하게 활성화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中國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構造的 問題點을 고려할 때 대개 年平均 5~6%의 安定成長을 추구할 것이므로 對外去來도 그에 相應하여 增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現段階에서 1990年代에 北韓이 과감하게 世界經濟에로의 編入을 시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90年代에도 北韓은 對外統制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政策基調를 세우고 그 基調 내에서 對外開放을 推進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北韓이 비록 對外開放을 擴大한다고 하더라도 長期間 閉鎖經濟體制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世界經濟에 융합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90年代는 北韓에 많은 變化를 주게 될 것이다. 이 期間에 金日成의 退進과 金正日의 權力承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過程에서 權力鬭爭의 樣相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그 위에 北韓은 解放 50周年이 되는 1995年을 기하여 對南關係에 중대한 變化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¹⁸⁾ 그러한 가능성은 주로 政治·軍事的 問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에 관한 具體的 提案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90年代 중에 中國의 權力構造에 變化가 생기고 政治·經濟的 民主化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이 北韓에 미치는 深刻한 影響을 最小化하고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北韓은 보다 적극적으로 對外開放의 範圍를 擴大하면서 美國·日本 등과의 緊密한 協調를 摸索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90年代는 南·北韓 經濟統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可視圈에 들어오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 金日成은 解放 50周年이 되는 1995년까지 祖國統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國土統一院,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改革方向」, 1990. 2, p.141.

IV. 1990年代의 世界經濟 展望

90年代初의 世界經濟는 III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短期的으로는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世界經濟의 構造的 不均衡이 시정되지 않고 日本과 아시아新興工業國에서 產業構造의 調整過程이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經濟成長率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社會主義諸國의 市場經濟로의 統合도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世界經濟의 활력 소로는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는 東西經濟交流의 증대에 따른 肯定的 效果가 폭 넓게 波及되는 가운데 EC統合과 東歐開放에 따른 유럽經濟圈의 活性化,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이은 國際貿易秩序의 再定立, 國際經濟 불균형의 是正 및 국제금융시장의 國際化 등에 힘입어 世界經濟의 成長趨勢는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 短期展望

(1) 世界經濟의 成長鈍化

90年代初의 世界經濟는 國際收支 黑字國과 赤字國 사이의 貿易摩擦이 持續되는 가운데 혼미해진 國際經濟秩序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하는 過程으로 把握될 수 있을 것이다. 社會主義國家들에서도 改革프로그램을 具體化하고 市場메커니즘을 도입하는 過程에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 상대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인센티브制度의 도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등 內部的 摩擦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構造的 變化的 과정에서 90年代初의 세계경제는 成長과 交易伸張의 완만한 鈍化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89年 중반 이후 선진국 經濟는 美國과 日本을 중심으로 景氣鈍化 趨勢를 보이고 있다. IMF, DRI, WEFA 등 主要機關에 따르면 이 경기둔화 추세가 금년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WEFA가 보는 선진국 經濟의 成長率은 88年의 4.3%에서 89年 3.4%, 90年에는 2.7%로 鈍化趨勢를 띠고 있다. 특히 美國經濟의 成長鈍化가 두드러져서 90年의 成長率이 2% 내외에 그칠 展望이 다.

成長鈍化의 直接的인 要因으로는 80年代 後半의 高率成長 過程에서 주요국에 發生한 인플레이壓力과 그 抑制를 위한 경제정책의 緊縮基調가 指摘된다. 美國의 경우 지난 1年 동안 10%를 上廻한(프라임레이트 基準) 高金利가 기업의 收益率 低下와 設備投資의 不振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88年以來의 예상 밖의 달러強勢에 따른 輸出鈍化, 東西和解의 진전에 따른 軍需産業의 위축 등도 향후 1~2년간 美國經濟의 성장을 制約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經常收支 黑字의 累積에 따른 對外經濟摩擦, 특히 美國과의 관계에서 오는 摩擦을 緩和하기 위해 그들의 經濟構造를 수출주도의 攻擊的 構造로부터 內需爲主의 구조로 轉換하는 過程을 계속하게 될 것

〈表 IV-1〉 主要國의 實質經濟成長率 展望

(단위 : %)

	세 계	선진국	미 국	일 본	서 독	유 럽	개도국	공산권
88	4.3	4.3	4.4	5.9	3.7	3.7	3.4	5.1
89	3.3	3.4	3.0	4.9	4.1	3.3	3.9	2.3
90	2.6	2.7	1.9	4.3	4.0	3.0	3.6	1.5
91	3.2	2.8	2.7	3.8	4.0	2.6	5.3	2.3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DRI/McGraw-Hill, *World Markets Focus*, Mar. 1990.

WEFA, *World Economic Outlook*, 各號

이다. 이 과정에서 日本의 輸入物量增加率は 수출물량의 增加率을 上廻함으로써 成長을 잠식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日本經濟의 90年 成長率은 4% 내외로 89년에 비해 소폭 鈍化될 전망이다.

유럽經濟는 成長鈍化의 幅이 美國이나 日本에 비해서는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로 通貨緊縮에 따른 디플레이션 效果에도 不拘하고, 東西獨의 統一, EC統合의 進行 및 東歐의 市場經濟化에 대한 期待로 投資意慾이 維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臺灣과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新興工業國은 先進國으로부터는 保護主義의 표적으로, ASEAN 등 後發開途國으로부터는 追擊의 대상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内部的으로는 높은 賃金上昇과 政治·社會的 과도기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克服을 위해 활발한 經濟構造調整을 推進하고 있다. 經常收支 赤字規模의 縮小, 對美輸出依存度低下, 經濟의 內需依存度 提高 및 產業構造의 改編 등을 主內容으로 한 新興工業國의 構造調整은 이미 상당한 成果를 거둔 것으로 評價되며, 그 調整過程에서 成長率의 鈍化가 調整의 費用(adjustment cost)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新興工業國 經濟의 成長率은 88년의 9.2%에서 89~90년에는 6% 內外로 鈍化趨勢를 보일 展望이다.

한편 國際貿易의 不均衡과 貿易摩擦이 단기적으로 是正되지 못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妥結展望도 불투명한 狀況에서 世界經濟의 成長이 전반

〈表 IV-2〉 新興工業國의 經濟展望

(단위 : %, 10億 달러)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88	9.2	5.2	28.27
89	6.1	5.9	23.53
90	6.2	6.0	23.49
91	6.8	5.5	22.20

자료 : WEFA, *Asia Economic Outlook*, 各號

〈表 IV-3〉 主要國의 貿易伸張率 展望(物量基準)

(단위 : %)

		세 계	선진국	미 국	일 본	서 독	E C
88	수 출	—	—	20.5	4.3	5.1	—
	수 입	10.9	9.9	6.0	16.7	5.7	8.8
89	수 출	—	—	12.3	3.3	10.6	—
	수 입	7.7	7.7	4.8	5.1	12.5	9.0
90	수 출	—	—	6.8	3.5	2.2	—
	수 입	4.5	4.0	4.1	6.5	6.1	4.2
91	수 출	—	—	10.4	1.4	2.8	—
	수 입	5.7	3.9	2.6	6.3	5.1	4.2

자료 : DRI, *European Review*, 各號

적으로 鈍化됨으로써, 世界交易量의 增加勢도 短期的으로는 低調할 것으로 보인다. DRI에 따르면 世界貿易量의 伸張率은 88년의 10.9%를 피크로 하여 89년 7.7%, 90년에는 4.5%로 下落하게 될 展望이다.

지난 數年間 總需要 팽창에 따라 上昇趨勢를 나타낸 先進國의 인플레이션率은 89년의 5%臺를 고비로 점차 鎮靜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 요인을 供給側面과 需要側面으로 나누어 보면, 供給側面에서는 油價를 비롯한 主要原資材 價格의 안정과 80년대 後半에 日本과 유럽地域에서 進행된 活潑한 設備投資에 힘입은 생산능력의 擴充 등을 들 수 있다. 需要側面에서 본 物價安定 요인으로는 主要先進國의 經濟成長率이 떨어짐에 따라 總需要의 壓力이 緩和되는 점과, 通貨政策의 優先的 목표가 인플레이션 抑制에 두어졌던 80年代의 趨勢가 90年代에도 계속될 것으로 展望되는 점이다.

〈表 IV-4〉 主要國의 物價上昇率 展望

(단위 : %)

	선진국	미 국	일 본	서 독	유 럽
88	3.9	3.9	0.0	1.2	4.8
89	5.0	4.4	1.7	2.8	6.3
90	4.5	4.1	1.7	2.9	5.3
91	4.2	4.1	1.1	3.1	5.0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WEFA, *World Economic Outlook*, 各號
 DRI/McGraw-Hill, *World Markets Focus*, Mar. 1990.

(2) 東西獨 經濟統合의 效果

90년 7월 2일로 예정된 東西獨의 通貨單一化 및 經濟統合은 獨逸經濟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89年末 현재 37萬名에 이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東獨人이 西獨 移住, 그리고 東西獨 通貨單一化에 따른 通貨膨脹은 西獨의 總需要, 특히 消費財需要와 建設需要의 增大를 가져올 것이다. 그 結果로 90年中 成長鈍化가 예상되는 대다수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西獨經濟는 4%內外의 유럽주요국 중 가장 높은 成長率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稼動率이 89.3%(89년 4/4분기 현재)¹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通貨量 增大와 總需要의 膨脹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 壓力은 예상되나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東獨內 현금 및 예금잔고를 1,900억 동독마르크로 추산하고 1:1의 교환율을 적용하면, 獨逸의 통화량(M3 기준)은 약 16%²⁰⁾ 增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總需要 增大는 東獨에서 생산되는

19) 건설산업의 가동률은 거의 100%에 달한다.

20) Merrill Lynch, *The Implications of German Monetary Union*, Mar. 1990.

M3=총통화+비은행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

〈表 IV-5〉 通貨單一化를 감안한 西獨經濟 展望

	1989	1990	1991	1992
실질성장률(%)	4.1	4.0	4.0	3.7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9	3.1	2.5
재정수지(10億DM)	0.7	-35.2	-26.1	-22.3
무역수지(10億DM)	138.3	143.1	132.1	129.8
Lombard Rate(%)	6.8	8.2	7.8	6.5

자료 : DRI/McGraw-Hill, *World Markets Focus*, Mar. 1990.

財貨와 用役의 供給²¹⁾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인플레이 壓力은 緩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中央銀行에 의한 강력한 金融緊縮, 勞動力의 供給增大에 따른 임금안정 등도 인플레이 壓力緩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0年中 西獨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3%內外로서 89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한편 東獨에 대한 投資需要 增大와 金融緊縮의 영향으로 西獨金利의 上昇勢가 예상되며, 對東獨支援을 위한 財政支出의 增大는 財政收支의 惡化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國際外換市場의 不安定 持續

최근 달러·마르크·엔 등 主要通貨의 換率이 큰 폭으로 騰落을 시현하고 있는 國際外換市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國際情勢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經濟의 不確實性 增大에 따라 그 不安定性이 持續될 것으로 전망된다. 年初以來의 強勢基調에서 5月初以來 弱勢로 反轉된 달러화의 價値는 年末까지 대체로 下落勢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5月初以來 달러貨에 대하여 약 3% 切上된 마르크化는 당분간 強

21) 東獨의 GNP 규모는 西獨의 약 1/6로 추산된다.

〈表 IV-6〉 主要國 通貨의 實效換率 變動率 展望

(單位：前年比，%)

	미 국	일 본	서 독	프랑스
1988	-5.5	11.3	-0.6	-1.9
1989	4.8	-4.2	-2.0	-2.2
1990	-3.0	-8.7	6.6	5.0
1991	0.7	2.4	0.6	-1.0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 Soci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 131, Feb. 1990.

勢를 持續할 전망이다. 이는 ① 東西獨 經濟統合의 日程이 公式化됨에 따라 獨逸經濟의 國際的 位相이 제고되고 있고 ② 通貨單一化에 따른 財政負擔 및 인플레이 壓力이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③ 統合以後 獨逸經濟의 活性化와 높은 投資收益率에 대한 기대로 마르크貨 表示 金融資産에 대한 選好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貨의 對달러 換率은 90年末에 1.62마르크 内外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엔貨의 價値는 달러貨에 대해서는 今年 4月の 최저점으로부터 漸進的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마르크貨에 대해서는 弱勢를 계속함으로써 實效換率基準으로는 切下趨勢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엔貨의 달러貨에 대한 회복세는 美日 金利差의 縮小, 美國貿易收支의 惡化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엔貨의 달러에 대한 절상폭은 그리 크지 않아서 4월의 달러當 160엔보다 소폭 절상된 150엔 内外에 머무를 전망이다.

2. 中長期展望

90年代 世界經濟의 中長期 成長패턴은 社會主義改革과 東西經濟交流의 展開方向, 國際貿易不均衡의 解消與否와 交易秩序의 장래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1) 國際情勢變化의 波及影響

우선 東歐의 開放과 資本主義方式의 導入은 短期的으로는 그 經濟的 效果가 西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社會主義經濟에 市場메커니즘을 도입하고 西歐와의 보완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 볼 때 社會主義國家의 改革과 東西和解의 進전은 世界經濟의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 分明해지고 있다. 人口 15億에 달하는 광대한 市場의 創出, 東歐와 EC의 經濟交流 增大와 產業構造 改編에 따른 유럽經濟圈의 活性化, 軍備縮小를 통한 보다 效率的인 資源의 配分 등은 世界經濟의 進로에 폭넓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그 效果를 精確하게 計量化할 段階는 아니지만 世界 GNP의 16.5%를 차지하는 共產圈의 90年代 成長率은 西方先進國의 成長率을 上廻할 展望이다.

軍備縮小의 경우 아직은 그 規模나 經濟的 파급효과가 확실한 段階는 아닌 상태에 있다. 그러나 美國과 蘇聯에서 각각 總生産의 6%와 16%를 占하고 있는 國防費의 상당폭 削減이 具體化될 경우, 軍需産業으로부터 보다 생산적인 産業으로의 資源再配分을 가져오고 재정적자를 減縮함으로써 當事國뿐만 아니라 世界經濟 全體의 活性化에 寄與할 것으로 期待된다.

〈表 IV-7〉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推移 및 中長期展望

(단위 : 年平均, %)

	세 계	미 국	일 본	서 독	E C	개도국	ANIEs	공산권
1980~1990	3.0	2.8	4.3	0.3	1.9	3.8	8.3	2.9
1990~1995	3.2	2.5	4.1	2.6	1.9	3.0	7.3	2.8
1995~2000	3.3	2.6	4.0	2.8	3.0	3.3	7.3	3.3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野村總合研究所, 野村經濟レポート, No. 8, 1990. 3. 15.

〈表 IV-8〉 美國의 國防費 支出 減少가 美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단위 : % 포인트)

	1991~1995	1996~2000
실질 GNP 성장률	0.0	0.1
물가 상승률	0.0	-0.1
수출	0.0	0.4
수입	-0.7	-1.3
산업생산	-0.2	0.2
군수품	-2.9	-4.1

자료 : DRI, *Review of the U.S. Economy*, Dec. 1989.Brian W. Cashell, "Defence Spending Cuts : Implication for Deficit Reduction and the Economy," *CRS Report for Congress*, Jan. 1990.

최근 DRI는 90年代 美國의 國防費가 매년 5%씩(實質基準) 삭감될 경우 나타나게 될 波及效果를 分析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89년 현재 1,500億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美國의 財政收支는 95년에는 적자규모가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가 98년에 가면 黑字로 돌아설 것이다. 財政赤字의 해소에 따라 利率이 하락하여, 현재 8%臺에 있는 聯邦基金金利(federal fund rate)가 90年代末에는 5.5%로 떨어지게 된다. 利率 下落에 따른 投資增大와 國防費의 節減에 따른 非軍需部門에 대한 設備 및 R&D投資 增大가 예상되며, 그 결과 生産性과 國際競爭力의 제고가 뒤따를 것이다.

(2) 國際收支 不均衡의 展開方向

80년대 國際經濟의 가장 큰 構造的 문제로 지적되는 主要國間 國際收支 不均衡의 전개방향은 환율조정을 포함한 국제적인 정책협조와 美國 財政赤字의 추이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先進國間 經濟政策協調(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의 장래는 短期的으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국의 國內政策目標과 對

外政策目標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美 FRB는 경상적자의 축소를 위해 달러價値의 弱勢維持가 緊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플레이 압력이 발생할 때 金融緊縮으로 금리상승과 달러貨의 強勢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요선진국들은 國際收支의 不均衡이 解消되지 못할 경우에 국제경제질서가 管理貿易의 대두와 배타적인 地域主義의 擴散으로 혼미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협조의 長期的 趨勢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日本은 지난 수년 동안 經濟構造를 내수위주로 전환시키는 作業을 推進하고 있으며, 臺灣과 韓國도 對外指向的인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수출과 성장의 鈍化를 겪음으로써 국제적인 불균형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美國의 연방재정적자는 短期的으로는 대폭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美國政府나 議會가 대폭적인 財政支出 삭감이나 세수증대와 같은 정치적인 코스트를 수반하는 政策을 推進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東西和解 무드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美國의 財政赤字가 크게 縮小될 것으로 기대된다. 美·蘇가 몰타 會談의 합의대로 냉전시대를 終息하고, 이것이 군비축소로 實體化될 경우 현재 3,000億달러로 GNP의 6%를 차지하는 美國의 국방비 부담을 크

〈表 IV-9〉 主要國의 經常收支 展望

(單位：10億달러)

	미 국	일 본	서 독	ANIEs	공산권
88	-126.6	79.6	48.6	28.6	2.3
89	-105.9	56.8	48.7	21.6	-3.5
90	-119.3	56.3	60.3	23.8	4.0
95	-95.6	43.0	100.0	20.0	-7.8
2000	-88.1	19.5	-	21.1	-8.3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WEFA, *World Economic Outlook*, 各號

野村總合研究所, 野村經濟レポート, No.8, 1990.3.15.

게 완화시킬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90年代의 國際收支 不均衡은 短期的으로는 美國 財政赤字의 상존과 달러貨強勢의 과급영향에 따라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長期的으로는 예견되는 군비축소와 정책협조의 진행에 不均衡 解消에 대한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3) 國際貿易·通貨秩序의 장래

한편 雙務主義와 相互主義의 濫用으로 혼미해진 世界交易秩序의 장래는 아직은 不透明하지만, 蘇聯·東歐의 世界交易參與 增大와 EC統合에 대한 域外先進國들의 견제로 多者間 秩序의 強化에 대한 必要性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管理貿易 등 保護主義의 근본적 背景인 世界經濟의 불균형이 緩和될 경우 交易秩序 再定立의 可能性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世界交易增大에 장애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는 雙務的 保護主義가 長期的으로 緩和되고 多者間 自由貿易의 규범이 마련되어 갈 경우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國際交易를 擴大시키는 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東西經濟交流의 꾸준한 擴大, EC統合으로 보다 넓어지는 유럽市場, 國際金融市場의 國際化 및 自由化 持續 등은 모두 세계교역의 伸張에 寄與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0年代初 브레튼 우즈體制的 崩壞 以後 主要國이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變動換率制度는 지나친 換率變動을 수반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과 不安定을 높인다는 문제점이 指摘되고 있다. 따라서 90年代에는 國際通貨制度의 改編論議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具體的인 방안으로는 現行 變動換率制度의 골격을 維持하되 目標換率帶(target zone)의 導入을 통해 現行制度를 改善하자는 J. Williamson 등의 主張이 우세한 가운데, 과거의 固定換率制度로 復歸하자는 R. McKinnon 등의 主張도 제기되고 있다.²²⁾

22) Edward Hochreiter, "Is A New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Needed?" i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Edited by Gery Bertsch and Christopher T. Saunders, 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V. 對外經濟政策의 課題와 方向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韓國經濟는 今世紀가 가기 전에 國內적으로는 윤택한 國民생활과 國際社會에서는 格上된 經濟的 地位를 달성함으로써 先進國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對外經濟政策의 課題와 政策方向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韓國經濟의 位相과 課題

「先進國 進入」에 이르는 과정에서 90년대의 韓國經濟는 對外的으로 수많은 도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전후 美國主導에 의해 유지되던 國際經濟秩序가 약화되고 보다 多極化된 國際經濟의 力學關係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로 移行하는 과정에서 오는 摩擦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韓國經濟는 신중상주의적 保護主義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지금의 위치를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美國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農產物과 광범위한 서비스市場의 開放壓力 등이다. 또한 EC統合의 추진이나 美國의 FTA締結 등으로 구체화되는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도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교역기회를 감소시키고 貿易障壁을 높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ASEAN 등 몇몇 後發開途國들도 풍부한 부존자원과 勞動力에 힘

입은 특유의 活力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 나라는 國際市場에서 韓國의 破綻 經濟體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에 韓國經濟가 先進國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國內의 經濟環境의 改善에 못지 않게 激動을 거듭하는 國際經濟環境에 조화롭게 적응하여 對外經濟關係에서 오는 摩擦을 완화하고 協力關係를 증진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 나라의 對外經濟政策은 현재 對美·對日關係로 단순화되어 있는 國際關係를 유럽·北方 및 太平洋地域으로 더욱 다변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는 한편 多邊化되는 國際關係에 걸맞는 產業構造를 갖추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社會主義諸國의 開放化로 창출되는 거대한 새 市場, 東西유럽의 접근으로 더욱 넓어지는 유럽經濟圈, 고조되는 亞·太經濟協力の 분위기 등이 韓國에 經濟交流 多邊化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한편 이제 世界 10大 交易國의 하나로서 그리고 黑字國으로서 중간 수준의 經濟力(a middle level power)²³⁾을 갖춘 우리에게 國際社會가 요구하는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른바 小規模 開放經濟의 한 모델로서, 國際經濟의 여건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國際經濟秩序의 새로운 規範(rule of game)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의 위치에 걸맞는 ‘自主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3) Rostow, W.W., *Korea and World Economic Development*,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p. 15, 1989, p.5.

2. 經濟交流의 多邊化

90年代의 世界經濟는 美國의 國際經濟에 있어서의 리더십 弱化和 東·西緊張의 완화로 인한 힘의 分散에 따라 美國·統合EC·日本 등을 중심으로 한 多極體制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 特定國家나 特定地域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不確實性을 증대시켜 國民經濟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의 對外經濟關係도 세계경제의 이러한 多極化 體制에 부합되도록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美國 및 日本에 지나치게 依存해 있는 우리의 對外經濟關係를 EC·北方 및 아시아국가 등으로 多邊化해 감으로써 地域間 交易의 衡平을 指向해야 할 것이다.

(1) 體系的인 北方政策의 推進

1) 北方政策 推進의 與件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1990년대의 國際政治 및 經濟情勢의 변화는 韓半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영향은 주로 한반도 분단의 당사국인 美國·蘇聯·中國 3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며 그 영향은 韓國의 北方政策과 더불어 北韓에 파급됨으로써 앞으로 韓半島 統一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할 것이다.

1990년대 國際情勢의 변화에 따라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의 震源은 社會主義圈의 변화, 韓國의 적극적인 北方政策에 의한 蘇聯·中國 등 社會主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進展 및 美國의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對韓 支援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 등이다.

앞으로 美國은 韓半島에 대한 영향력이 큰 蘇聯 및 中國과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協力體系를 모색하는 한편 北韓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서 韓國에 대한 軍事支援의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美國은 對韓軍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韓半島에서의 既得權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 노력의 일단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經濟的 實利追求로 이어짐으로써 美-北韓交易 및 經濟協力の 範圍와 規模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러한 對한반도정책에 따라 한국은 韓半島의 安全保障을 확고히 하기 위한 北方政策의 추진을 더욱 積極化하게 될 것이다.

蘇聯과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의 변화는 그들의 韓國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인식은 1990년대의 韓半島情勢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중에서 蘇聯의 최근 對韓 認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蘇聯의 對韓 인식변화는 무엇보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이 아시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고르바초프의 至上課題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이며, 고르바초프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은 蘇聯經濟의 발전중심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연설과 1988년 9월의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연설 가운데 아시아에서 蘇聯의 역할 증대가 강조되고 中·蘇관계 개선과 韓國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확대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政治的 이유에서보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蘇聯의 中國, 日本 및 남·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적지 않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의 결과이다.

특히 蘇聯이 새로운 아시아정책에서 한반도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한반도가 地政學的으로 蘇聯 동부지역과 亞太地域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때문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高度經濟成長의 경험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成長潛在力도 클 뿐만

아니라 劣惡한 조건하에 있는 중동지역 건설에 참여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極東地域 개발에 日本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다. 蘇聯이 日本보다 韓國을 택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日本의 北方領土 문제가 日·蘇 경제협력에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소비재 및 서비스부문의 생산구조가 취약한 소련 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문에 대한 韓·蘇 合作投資는 蘇聯이 당면하고 있는 소비재와 서비스의 공급부족문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技術移轉效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蘇聯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韓·蘇頂上會談으로까지 發展된 蘇聯의 韓國에 대한 관심의 高潮는 모스크바방송과 프라우다紙 등의 보도성향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보도 회수에서 韓國 관련 보도가 北韓 관련 보도를 능가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韓國의 政治, 社會 상황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경제발전 찬양, 北方政策의 성공적 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蘇聯 言論들은 우리 나라 北方政策의 성과로서 韓·蘇間의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력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두 나라 修交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蘇·北韓間의 민간친선기구인 蘇·朝視善協會를 南北韓이 함께 파트너가 되는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이 협회 중앙위원회 정기회의 토론내용까지 보도하였다.²⁴⁾ 蘇聯의 이러한 對韓半島政策의 변화는 韓·蘇, 北韓·美國 관계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蘇聯이 남북한 UN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의 변화는 70년대 말 그들의 對外開放政策의 추진과 더불어 나타났으며, 그 특징은 政經分離의 원칙에 따라 北韓과는 政治的 유대를 강조하면서 韓國과의 경제적 교류 확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와 中國間에 경제교류를 포함한 非政治的 관계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1990년대에

24) 「內外通信」, 1990. 2. 2.

도 그러한 趨勢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韓半島와 관련된 中國의 經濟協力構想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東北亞經濟圈의 거론이다. 아직까지 이것이 中國政府의 공식제안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나 中國의 學界와 政府 人士들 사이에서 매우 넓은 共感帶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은 中國의 동북부, 蒙古 동부, 蘇聯의 시베리아와 극동, 南北韓 및 日本이다. 이 東北亞經濟圈의 構想이 관련 국가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더욱 구체화될 때 韓·中 관계의 폭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고 北韓에 대한 영향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韓半島에 대한 美國, 蘇聯 및 中國의 政策은 각기 다른 目標와 戰略을 가지고 있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국가들의 현재와 장래의 한반도 정책은 모두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美國은 美·蘇·中·日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勢力均衡의 형성을 모색하고 自國內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先行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蘇聯과 中國은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 없이는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들 강대국들이 필요로 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990년대에는 蘇聯과 中國의 북한에 대한 변화의 압력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기보다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을 견도록 誘導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욱이 中國은 蘇聯에 비해 韓國과의 관계개선을 장기적 전략에서 필요로 하고, 中國의 國內政治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蘇聯의 고르바초프와 크게 다른 鄧小平 등 革命 一世代의 保守勢力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短期的 觀點에서 中國이 북한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蘇聯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일단 북한은 中國을 방패로 하여 기존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中國의 혁명 一世代의 퇴진과 그에 따른 政治的 변화가 불가피하며, 우리 나라와의 關係正常化 역시 시간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同質性을 확인시켜 주던 蘇聯의 共產黨 일당독재의 포기는 中國의 政治改革을 앞당기게 할 가능성이 있다. 蘇聯과 中國의 변화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것은 거의 확실하다.

2) 北方政策의 推進方向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北方政策을 第1期로 본다면, 그 동안의 北方政策은 매우 成功的이었다고 評價될 수 있다. 급변하는 國際情勢의 趨勢에 비추어 볼 때 北方政策은 그 追求하는 方向과 速度에 있어서 매우 적절했다고 評價될 수 있으며, 그 結果는 對外的으로 韓國의 國際的 位相을 격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제 北方政策은 90年代를 맞아 第2段階에 접어들었으며, 第2期の 北方政策은 國民의 合意, 實利的 選擇 및 體系的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第2段階 北方政策의 초점은 對蘇聯 進出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蘇聯은 1990年 上半期에 極東 연해주 나훗카지방을 經濟特區로 開發할 것이 확실시되며,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르니, 나훗카 등을 연결하는 東部 海運體系의 형성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進出을 加速化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蘇聯은 日本 및 韓國과 활발한 交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第2段階 蘇聯進出은 궁극적으로는 政經連繫의 次元에서 韓·蘇 國交關係 樹立에 力點을 두되, 우선은 經濟的 實利追求를 위한 經協體制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經濟的 實利追求를 위한 對蘇進出은 시베리아 開發에의 參與이며, 그것은 市場開拓, 資源確保, 海運產業發展의 차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시베리아 開發有關事業인 建設業, 기계, 화학, 재료공업, 造船業, 海運業, 보험업 등의 活性化가 기대된다.

北方政策의 第2段階에서 中國은 蘇聯의 對韓 接近方式을 고려하여 對韓政策의 方向을 決定할 것으로 展望된다. 지난 5月の 天安門사건으로 中國의 民主化 推進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으며 經濟改革 또한 再整備를 착수함으로써 다소 減速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開放政策의 基本路線은 변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의 中國進出 노력은 擴大, 持續되어야 할 것이다.

90年代에도 中國은 經濟特區 및 開放都市의 經濟 活性化를 계속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그 根據로서 天安門事態로 유보되어 왔던 外國企業의 海南島 土地使用權 판매, 上海의 完全開放 실시, 沿岸開發 전략의 具體化, 東靠西移方式의 具體的 實踐 등을 발표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對中國交易과 投資를 위한 進出은 競爭國인 日本·臺灣·홍콩 등의 動向을 注視하고 가능한 한 이들 國家와의 協力體系를 유지하면서 유리한 據點確保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中國의 黑龍江省과 吉林省은 蘇聯, 北韓과의 經濟交流에 있어 據點이 될 것이며 遼寧省, 河北省, 山東省은 首都圈에 가까운 地域으로 中央政府의 影響力이 비교적 크게 미치고 政治的 影響도 많이 받는 地域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東南部 6個省(江蘇, 浙江, 福建, 廣東, 廣西自治州, 海南省)은 香港·臺灣의 企業들이 同一民族의 利點을 활용하여 유리한 高地를 확보해 나갈 것이므로 우리 企業의 이 地域에 대한 進出에는 이들 兩國과의 協力體系 유지가 필요하며, 中國內陸에 대한 進出에는 이미 經驗을 갖고 있는 美國과 日本企業의 事例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東歐進出은 東歐自體의 重要性뿐 아니라 東歐를 발판으로 한 蘇聯 및 EC市場 進出에도 重要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진출에 있어서는 특히 實現可能性, 採算性 및 相互補完性을 고려한 選別的 接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헝가리 進出은 對오스트리아 및 EFTA 進出을 위하여 필요하며, 東獨에 대한 進出은 對西獨 및 EC進出을 위하여 重要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폴란드·체코·유고 등의 進出은 보다 치밀한 調査와 研究를 통해 現地實情에 부합된 進出戰略을 조심성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東歐進出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등 中立國의 仲裁를 原則으로 한 紛爭解決協定の 締結은 매우 중요하다. 美國은 폴란드와의 紛爭에서 오스트리아를 仲裁地로 하여 「外國仲裁判定 承認 및 執行에 관한 UN協約」을 적용한 바 있다.

이상의 北方 各地域에 대한 進出은 民間主導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美國, 西歐 및 日本의 企業들과의 國際的 投資團(consortium)을 구성하여 共同進出을 성사시킴으로써 進出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進出을 위한 情報確保를 위해서는 北方主要國의 商業會議所가 主管하는 産業博覽會에의 積極적 참여가 필요하다. 蘇聯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에서 열리는 産業部門別 博覽會, 中國의 廣州交易會, 東獨의 라이프치히博覽會, 체코의 기계산업 박람회 등은 그 代表的인 例이다. 또 北方開發基金 設置, 民間協議會 構成 등도 推進되어야 한다. 그 밖에 投資保障協定, 二重課稅防止協定, 航空海運協定 등의 締結과 北方進出 企業들에 대한 政府의 認許可節次 簡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유럽經濟圈에의 積極적 進出

1990年代에 유럽은 EC를 중심으로 EFTA와 東歐一部를 포함하는 世界最大의 經濟圈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럽經濟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럽經濟圈에의 積極적인 참여 없이 韓國이 21世紀에 先進國際國家로 발돋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經濟圈에의 積極적인 진출은 美國과 日本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는 우리의 對外經濟關係의 多邊化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經濟圈 자체를 대상으로 한 經濟協力の 확대라는 積極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므로, 이 地域에 대한 進出戰略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우선 進出時期를 가급적 앞당겨야 한다. 유럽經濟圈은 1992年을 목표로 한 EC統合, 90년대 초의 EC와 EFTA의 EES形成과 EC-東歐關係의 긴밀화 등 90년대 전반에 그 골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先進國과 中

進國이 존재하는 自給自足的 성격이 강화될 것이므로 經濟圈의 형성이 공고해지면 保護主義의 성격을 띠어 進出擴大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면 早期에 진출하여 이 經濟圈의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進出方法의 多樣化가 필요하다. 현재 EC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유럽進出은 商品交易에 주로 의존해 있고, 그것도 電氣·電子, 섬유, 신발 등 소수품목을 서독, 영국, 프랑스 등 소수국가에 수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商品輸出에 있어서도 品目과 地域의 多樣化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現地投資의 확대와 진출기업의 現地化戰略의 추진인데 이는 EC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럽要塞化(Fortress Europe)의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고, 최소한 현재 우리의 比較優位品目에 대해서는 유럽經濟圈이 保護主義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現地投資의 확대에 있어서는 現地企業의 買受·合併(M&A)뿐만 아니라 工程分割에 의한 진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同伴進出등 다양한 진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進出地域을 多邊化해야 할 것이다. 현재 西獨, 英國,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對유럽經濟關係를 EC餘地國家뿐만 아니라 EFTA諸國 및 東歐圈으로 多邊化하고 또한 각 地域의 經濟的 特性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출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선 EC를 東歐進出의 교두보를 활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EC와 對東歐 共同進出 및 東歐를 통한 EC 및 EFTA 進出方案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技術協力이 강화되어야 한다. 技術協力에 있어서는 EC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共同研究開發 計劃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함과 아울러 美·日에 비하여 보다 쉬운 EC의 源泉技術移轉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源泉技術導入도 민감한 産業部門보다 環境·保健등 人類福祉에 기여하는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EC의 通商壓力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市場開放은 互惠主義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知的所有權등에 있어 美國에 비해 차별

적인 EC 및 유럽諸國에 대한 대우가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政府調達市場에 EC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GATT에서 EC와의 協力關係를 강화함으로써 EC의 通商壓力을 완화 내지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情報蒐集 및 活用體系를 확립하고 人的 交流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C統合 및 유럽經濟圈의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신속한 情報蒐集과 이의 傳播 및 활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내에 「유럽情報센터」의 설립운영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또한 人的 交流를 확대하여 韓·유럽諸國間의 각 부문에 걸친 協力關係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對外經濟摩擦의 緩和

(1) 多者間 交易秩序 定立에의 적극 참여

1990年代의 世界交易秩序는 우루과이 라운드協商 結果의 方向에 따라 그 진로가 좌우될 것이다. 금번 協商에서 별다른 성과가 얻어지지 못할 경우 雙務的 壓力의 고조, 地域主義 및 自由貿易協定推進의 擴散등으로 多者間 交易秩序體制는 큰 타격을 입을 展望이며 世界 10大 교역국 중의 하나인 우리 나라 經濟의 앞날에 미칠 영향 또한 至大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와 같이 協商力이 약하고 海外市場依存도가 높은 先發開途國의 입장에서는 多者間 交易秩序體制의 強化야말로 雙務的 壓力에 對處할 수 있는 최선의 方法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서면제안, 공식·비공식회의의 참가, 協商議題에 따라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共同對應 등 적극적인 參與를 통해 協商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각 協商議題마다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90年 中半에는 국가간의 協商이 結論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各 議題內의 주요쟁점뿐 아니라 議題間의 trade-off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 거시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협상팀, 학계 및 연구소의 전문가그룹 및 업계간의 긴밀한 協調體制가 充分히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 一般國民 특히 業界의 理解와 關心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에 비추어, 금번 多者間 協商의 向後 일정, 主要爭點, 우리 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業界를 중심으로 한 對國民 弘報努力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또한 主要交易國과의 雙務的 貿易摩擦이 있을 경우, 이의 解消를 위해 GATT 등 國際機構의 紛爭解決制度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韓·美 經濟協力 體制의 지속적 발전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이 성공적으로 妥結된다 하더라도 그 結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國內經濟事情 등에 따라서 EC와 美國은 雙務的 壓力을 다각적으로 活用할 것으로 豫想된다. 최근 美國과의 貿易收支不均衡으로 인한 통상마찰은 이미 원貨의 切上과 市場開放壓力등 韓國經濟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反美感情까지도 유발시켜 전통적으로 維持해 온 韓·美 우호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이 韓國의 가장 중요한 貿易과 資本 및 技術協力の 파트너이며 앞으로 韓國의 發展方向이 貿易과 國際協力の 확대를 통한 國際化라는 점에서 韓·美 經濟關係의 올바른 이해와 美國市場에의 새로운 접근방식의 개발을 통해 韓·美 經濟協力 體制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美國과의 通商摩擦의 근저에는 對美貿易黑字가 있음을 인식하여 短期的으로는 對美貿易黑字의 管理와 함께 장기적으로 同伴者的인 協力關係로 發展시키는 戰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첫째, 韓國經濟의 先進化를 위한 장기적인 經濟構造調整方向에 바탕을

은 市場開放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推進해야 한다. 이는 國內 産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對美通商摩擦을 緩和시켜 줄 뿐 아니라 韓國의 經濟政策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여 줄 것이다.

둘째, 분야별 相互主義原則에 의한 품목위주의 協商方式에서 벗어나 보다 長期的이고 경제전반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巨視經濟政策과 貿易政策 전반에 관한 協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韓·美通商協商에서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履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시적인 國內經濟의 어려움으로 合意된 事項을 연기 또는 위반하는 것은 韓國經濟政策의 公信력과 信賴性을 저하시켜 오히려 長期的으로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推進해 온 워싱턴 爲主의 弘報活動으로부터 더욱 발전하여 上下議員의 선거구등 地域을 對象으로 하는 弘報活動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韓國經濟와 韓·美 經濟關係의 올바른 이해를 增進시키기 위해서는 政府官吏들과의 政策協議도 중요하겠으나 業界 및 의회 그룹과의 相互 의견交流를 正례화시킬 必要가 있다.

또한 研究機關과의 學問的 交流, 지명도 높은 學者들의 招請등을 통해 미국내 親韓 인사층을 두텁게 하는 長期的인 弘報事業도 함께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4. 積極的인 産業構造調整의 推進

종래 우리 나라의 對外貿易 관계는 美·日·EC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90年代의 對美 輸出展望은 불투명하며, EC統合의 영향도 단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最近의 換率의 不安定 및 급격한 賃金上昇은 기존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과 比較優位 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商

品은 여타 아시아의 新興工業國 및 ASEAN國家들과 競爭關係에 있어, 90年代의 貿易擴大와 持續成長을 위하여는 産業構造의 조정과 整備가 우선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産業構造의 調整은 對外 市場與件의 변화와 比較優位體制의 변화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最近 우리 나라는 對內的으로 노사분규와 高賃金時代를 맞이하였고 對外的으로는 小品種 大量輸出品目들이 通商摩擦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가 높은 技術集約型 多品種 小量生産體制로의 生産構造 轉換과 生産工程의 改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中小企業의 育成과 技術開發의 促進에 政策의 力點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나라의 産業技術은 지금까지 外國으로부터 導入된 技術에 의존하여 왔으며 이에 기초한 工業化는 이제 限界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自體技術開發 能力의 제고가 우리 나라의 先進圈 진입의 관건이 되고 있는바, 획기적인 R & D 投資의 제고는 물론 民間部門에서 技術開發 活動을 촉진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한 産業組織側面에서의 一大革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財閥企業은 專門化와 國際化를 추진하고, 所有와 經營을 분리하여 專門經營人이 실제로 最高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經營體制를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0年代에는 製造業의 構造調整과 아울러 農林水産業의 能率化와 構造革新이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農漁村의 지속적인 所得向上을 기하고 農林水産業을 競爭力 있는 産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規模化와 科學化를 추진하는 과감한 構造革新과 이를 위한 획기적인 投資擴大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南北交流의 擴大

1988년 7월 7일 盧泰愚 大統領은 「民族自存과 統一·繁榮에 관한 特別宣言」을 발표하여 南北韓間의 交易과 人事交流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同年 10월 7일에 經濟企劃院長官은 北韓의 物資收入 및 中繼 許容, 北韓產 物資의 原產地 表示와 商標附着을 許容하는 등의 南北韓間 經濟交流의 促進에 관한 政策을 발표하였다.

政府의 이러한 政策으로 民間企業들은 北韓과의 直接交易 및 投資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1990년대에 南北韓의 經濟交流가 活性化될 수 있는 與件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北韓이라는 상대방이 있고 南北韓 關係의 特殊性 때문에 우리 쪽의 여건 조성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政策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南北經濟交流의 意義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위한 戰略的인 接近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北韓과의 적극적인 經濟交流를 模索하는 것은 단순한 經濟的 利益만을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우리의 北方政策을 통하여 다져진 社會主義圈 國家들과의 關係改善과 최근에 급진전되고 있는 東西和解의 雰圍氣를 활용하여 南北韓의 協力體制를 構築함으로써 韓半島에서 戰爭의 危險을 없애고 民族의 同質性 恢復과 平和統一의 基盤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經濟交流는 순수한 經濟的 次元을 넘는 큰 意義를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南北韓間의 緊張과 對立이 解消되지 않은 상태에서 經濟交流의 擴大에 가장 중요한 것은 交流對象을 잘 선택하는 일이다. 그것은 첫째, 北韓의 對南 競爭意識을 刺戟하지 않는 부문이어야 하고, 둘째는 南北經濟交流의 效果가 北韓內部에 큰 衝擊을 주지 않는 부문이어야

하며, 셋째는 그것이 北韓 執權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南北이 서로 經濟的 實利를 얻을 수 있는 부문이어야 하며, 넷째는 交流의 擴大가 우리의 安保를 위협하지 않는 부문이어야 한다.

現段階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문은 交易에서 農產品, 非金屬鑛物 등 1次產品 및 그 加工品과 土產品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工產品은 南北韓間에 品質 등의 隔差가 심하여 北韓 當局者들이 쉽게 交易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北韓으로부터 輸入할 만한 商品이 많지 않다. 또한 鐵鋼 등 金屬製品은 北韓의 軍需工業 原料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南北交易品目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 投資나 經濟協力은 가급적 北韓 주민들의 거주지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地域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北韓 內部에 衝擊效果를 주지 않으므로 비교적 쉽게 北韓을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南北合作投資事業으로서 金剛山開發事業과 遠洋漁勞事業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事業들은 우리의 資本 및 技術과 北韓의 勞動力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南北韓 全域의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앞으로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擴大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南北韓 關係者들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南北經濟會談이 再開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새롭게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方案이 필요하다.

政府主導인 南北韓 經濟會談과는 별도로 北韓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部門의 民間企業人들을 대표로 하는 「南北民間經濟交流協會」와 같은 機構의 구성 제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구는 政治的 名分을 앞세우는 政府次元的 會談이 갖는 취약점이 없고,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經濟的 隘路의 打開方案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南北체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北韓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

성이 있다.

北韓에 비록 순수한 民間經濟人은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民間機構을 통한 南北 접촉은 北韓 政府當局者들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北韓 政府當局者의 체면상 거론되기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北韓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生必品の 供給과 北韓이 外貨不足 때문에 中斷되었거나 推進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資本 및 技術協力 問題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南北交流基金도 政府가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民間機構에서 활용함으로써 政府豫算과는 다른 基金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맞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經濟構造調整諮問會議, 「經濟先進化를 위한 基本構想」, 經濟構造調整諮問會議報告書, 1988. 10.
- 國土統一院,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改革 方向」, 1990. 2.
- 東京フォーラム '89, 「地球經濟への 提言, 地域主義を 超えて」, *Nomura Search*, 1989. 1.
- 産業研究院,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深化推移와 우리의 對應」, Issue Paper 89--33, 1989. 2.
- 産業研究院, 「通商白書: 通商政策의 中長期構想」, 1989. 7.
- 野村總合研究所, 「財界觀測」, 1989. 10.
- _____, 「野村經濟レポート」, No.8, 1990. 3.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5カ年經濟豫測」, データ集, 1990. 1.
- 韓國開發研究院, 「世界經濟블록化의 現況과 對應課題」, 1989. 1.
- Aganbegyan, A., *The Challenge : Economics of Perestroika*, London : Hutchinson, 1988.
- _____, *The Economic Challenge of Perestroika*,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and Timor Timofeyev, *The New Stage of Perestroika*, New York : Institute for East-West Security Studies, 1988.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ary Statement by the Chairman." Canberra. November 1989.

- Baker, J. A. "The Imperatives of Economic Reform : Change in Soviet and East European Economies,"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U.S.A., 1990 (Testimony Material)
- Bergsten, C.F., *America in the World Economy : A Strategy for the 1990s*,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8.
- _____,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 Presentation to the Commemorative Symposium for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Taisho Research Institute, May 21, 1990.
- Bertsch, G. and T. Saunders ed., *East-West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London: Macmillan, 1989.
- Blazyca, G., *Poland to the 1990s : Retreat or Refor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1061, 1986.
- Brainard, L.J., "Trade and Payment Problems in Eastern Europe : The Debt Crisis Forces Policy Changes," *East European Economies : Slow Growth in the 1980s*, Vol. 2,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86.
- Brender, A., "Is the World Economy about to Disintegrate?" *Inter-economics*, Jan./Feb. 1989.
- Cashell B.W., *Defence Spending Cuts : Implication for Deficit Reduction and the Economy*, CRS Report for Congress, Jan. 1990.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CPAS88-10001, 1988.
- Childs, D., *East Germany to the 1990s : Can It Resist Glasnos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1118, 1987.
- CIA and the Defence Intelligence Agency, *The Soviet Economy in 1988 : Gorbachev Changes Course*, April 1989.

- Cline, W.R., *American Trade Adjustment : The Global Impact*,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9.
- Data Resources/NIKKEI, *Japanese Review*, 各號.
- DRI/McGraw-Hill, *U.S. Long-Term Review*, 各號.
- _____, *World Markets Focus*, Mar. 1990.
- East-West*, December 21, 1989.
- Elliott, K.A. and J. Williamson ed., *World Economic Problem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pecial Report 7, 1988.
- Ellis, J.L., "Eastern Europe : Changing Trade Patterns and Perspectives," *East European Economies : Slow Growth in the 1980s*, Vol. 2, Joint Economic Committee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86.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6, 1989.
- Financial Times*, February 21, 1990.
- Funabashi, Y., *Managing the Dollar : From the Plaza to the Louvre*,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8.
- GATT, *International Trade 88 ~ 89*, 1989.
- Geiger, T.,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llen & Urwin, 1988.
- Grunwald, H.A., "New Challenges to Capitalism", *Fortune*, May 7, 1990.
- Hochreiter, E., "Is A New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Needed?" i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Edited by G. Bertsch and C. T. Saunders, 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 Hormats, R.D., "Redefining Europe and the Atlantic Link," *Foreign Affairs*, Fall 1989.
- Hough, J., *Russia and the West : Gorbachev and the Politics of Reform*, New York : Simon & Schuster, 1988.
- Huntington, S.P., "The U.S.-Decline or Renewal?" *Foreign affairs*, Winter 1988/1989.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 IMF, *World Economic Outlook*, 各號.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esolv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 After Wall Stree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pecial Report 6, 1987 .
- Jaramillo, A.F., *Seminar I on Uruguay Round Services Negotiation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89.
- Jeong, K.,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cialist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Korean-German Conference.
-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Pressures for Reform in the East European Economies*, Vol. I, II,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 Kennedy, P.,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 Random House, 1987.
- Kerpel, E. and D.G. Young, *Hungary to 1993 : Risks and Rewards of Refor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1153, 1988.
- Kim, D., W. Gumpel and G. Kindermann, *New Dynamics in East-West Relations*, Seoul :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89.
- Kurtzweg, L., "Trends in Soviet Gross National Product," *Gorbachev's Economic Plans*,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87.
- Lynch, A., *Gorbachev's International Outlook : Intellectual Origins and Studies*, 1989.
- Merril Lynch, *The Implications of German Monetary Union*, March 1990.

- MITI, *Report of the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Asia-Pacific Cooperation*, Tokyo, June 1989.
- Mottola, K. and H. Patomaki, *Facing Change in Europe : EFTA Countries' Integration Strategies*, Helsinki : 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9.
-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 Soci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131, Feb.1990.
- Naylor, T.H., *The Gorbachev Strategy*,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88.
- Nello, S. S., "Some Recent Developments in EC-East European Economic Relation," *Journal of World Trade*, Vol. 24, No. 1, February 1990.
- Nukazawa, K., "Interdependence and Regionalism,"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Fall 1988.
- Papp, D.S., *Soviet Perceptions of the Developing World in the 1980s*,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85.
- Poznanski, L., "Competition between Eastern Europ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estern Market for Manufactured Goods," *East European Economies : Slow Growth in the 1980s*, Vol. 2,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Rostow, W.W., *Korea and World Economic Development*,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ptember 15, 1989.
- Sampson, G.P., *Uruguay Round/Services Negotiation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89.
- Stern, R.M. ed., *U.S. Trade Policie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MIT Press, 1989.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s : Bulgaria,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Poland, Yugoslavia, Romania*,

USSR, 1989, various issues.

WEFA, *World Economic Outlook*, 各號.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政策資料 90-02

1990年代 國際經濟環境變化와 政策對應

1990年 6月 14日 印刷

1990年 6月 16日 發行

發行人 金 迪 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7의 21

電話：561-2999, 팩시밀리：561-2688

印 刷 韓 國 컴퓨터 產 業 (印 刷) 株 式 會 社
